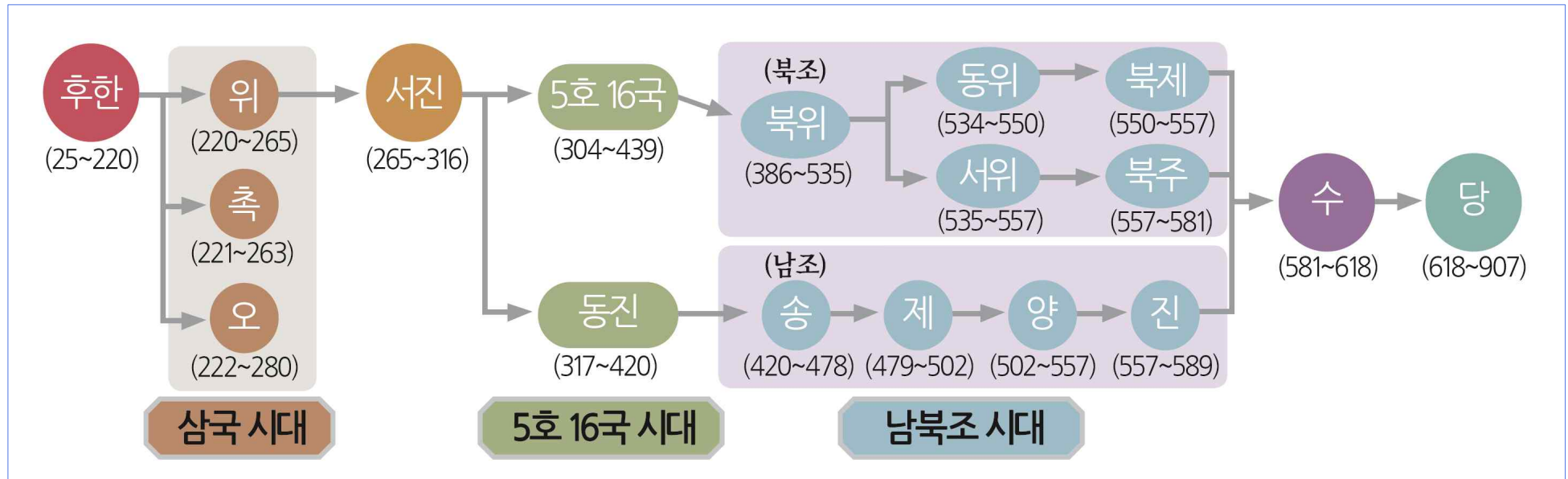




- ① BC. 203
BC. 194
- ② 진국의 한왕
- ③ 이타즈케 유적
- ④ BC. 37
- ⑤ BC. 18
- ⑥ 304 ~ 439
- ⑦ 317 ~ 589
- ⑧ 도왜인(도래인)
야마토 정권 수립(4C)
전방후원분(4 ~ 6C)
스에키(5C)

▣ 인구 이동의 요인 [①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 ② 인구 증가, ③ 종족 간 또는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④ 국가 사이의 전쟁]

※ 교정[북제(550 ~ 577)]



(420 ~ 439 ~ 589)

□ 인구 이동

선비, 흉노 등의 북방 민족은 만주와 몽골 등지에서 남하하여 화북 지방에 거주하다가, 3세기 이후부터 한쪽을 누르고 잇따라 독자 정권을 세웠다. 한쪽은 이들을 **5호(五胡, 흉노·선비·갈·저·강족)**라고 불렀다. 그 중 선비족의 일파가 세운 전연(337 ~ 370)과 후연(384 ~ 407)은 요서와 지금의 베이징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고구려와 랴오둥(요동) 지역을 두고 패권을 겨루기도 하였다. **5호가 세운 여러 나라는 439년 선비족의 또 다른 일파가 세운 북위에 의해 통일되었다.** 한쪽 정권은 5호에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창장 강 이남의 강남 지방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강남 지방의 토착민과 협력하여 317년 건강(지금의 난징)을 중심으로 동진을 세우고, 화북의 5호 정권과 대립하였다. 이후 강남 지방에는 한족 왕조들이 차례로 들어서서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에 세운 북조와 대립하였다.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개념 Check

- ① ()의 주몽은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방으로 남하하여 고구려를 세웠다.
- ② ()가 성장하면서 정권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생기자, 온조는 한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백제를 세웠다.
- ③ 흉노 등 북방 민족이 화북 지역을 점령하자, 진(晉)의 한족이 창장 강 이남으로 이동하여 317년에 ()을 건국하였다.
- ④ 일본에서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왜로 이주한 이주민을 ()이라 부른다.
- ⑤ 4 ~ 7세기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의 인구 이동은 () 정권이 성립되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⑥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무덤인 ()을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였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 동아리 탐구 활동 보고서〉


1. 탐구 주제: (가)

2. 조사 내용

(1)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은 스에키 토기



▲ 가야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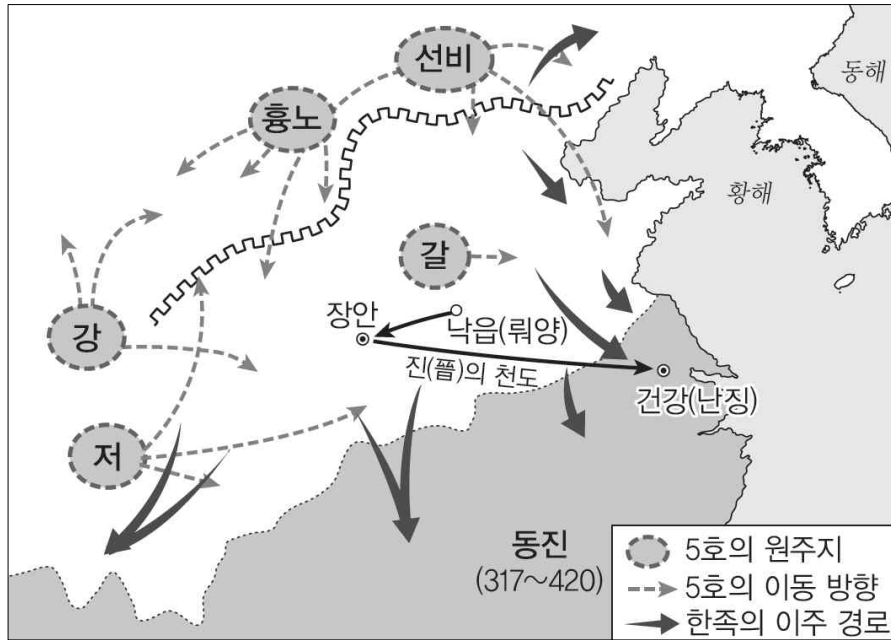


▲ 스에키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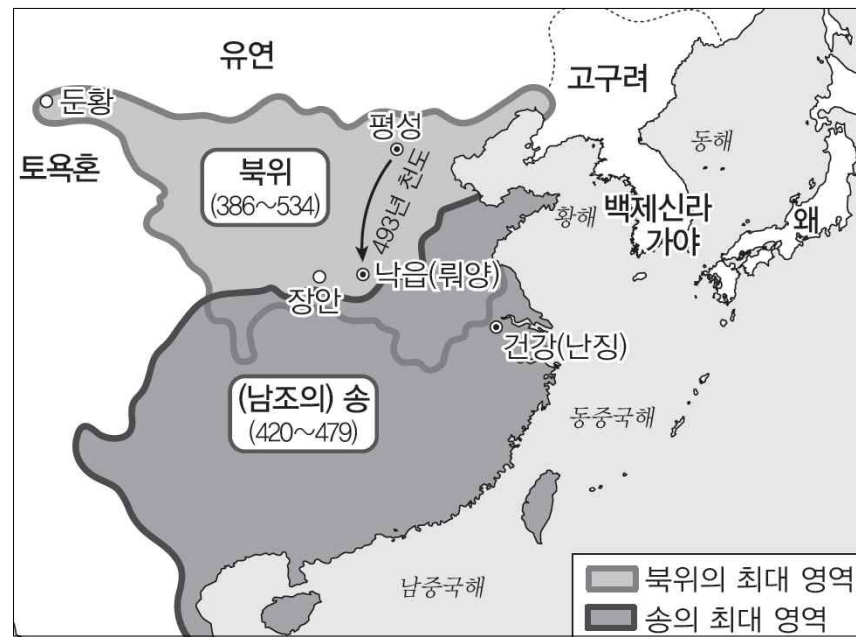
(2) 『일본서기』에 보이는 도공 관련 기록
 “신라 왕자 천일창이 왔다. …(중략)… 오미[近江] 지역에 있는
 도공들은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다.”

- ① 도왜인의 활동과 기술 전파
- ② 5호의 이동에 따른 중원의 변화
- ③ 가마쿠라 막부 시기의 대외 교류
- ④ 백제의 성장에 기여한 낙랑 유민
- ⑤ 한족의 남하와 강남 지역의 개발

4세기



5 ~ 6세기



- ▣ **중원[5호 16국 ⇨ 동진 건국(원제 사마예, 317) ⇨ 북위 건국]**
 : 5호 16국 시대(화북, 304 ~ 439), 북위 건국(선비족 탁발씨, 386 ~)
 : 팔왕의 난(291 ~), 영가의 난(307 ~), 한족의 강남 이주(동진 건국)
- ▣ **한반도[백제 근초고왕, 고구려 광개토대왕(㉑, 재위 391 ~ 413)]**
 : 근초고왕(㉓, 재위 346 ~ 375), 백제의 전성기
 : 불교 수용 → 고구려(from 전진, 372), 백제(from 동진, 384)
 : 고구려 → **낙랑 축출, 313**, 신라 지원(400)
- ▣ **일본 열도**
 :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성장(도래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의 조성
 : 칠지도 전래(369)

- ▣ **중원[남북조 시대 ⇨ 수 건국(581) ⇨ 과거제(587) ⇨ 진(陳) 멸망(589)]**
 : 북위의 5호 16국 통일(439 ~), 강남의 송(420 ~) → 남북조 시대
 : **북위 효문제**(재위 471 ~ 499)의 **호한융합 정책** 실시
 ↳ 균전제(485), 삼장제(인장·리장·당장), 한화 정책(호어·호복 금지, 원씨)
 : 돌궐의 유연 격파(552) ← **북주·북제의 혼인 경쟁**
- ▣ **한반도[백제 무령왕(㉕, 재위 501 ~ 523), 신라 진흥왕(㉗, 재위 540 ~ 576)]**
 : **고구려 장수왕**(㉘, 재위 413 ~ 491) → **남북조와 조공·책봉 관계 수립**
 : 신라 ~ 남조의 양(梁)과 수교(**백제의 도움, 521**), 무령왕릉 축조(525)
- ▣ **일본 열도[쇼토쿠 태자(574 ~ 593 ~ 595 ~ 622)]**
 : 스에키(5세기, 백제·가야), 불교 전래(from 백제, 552), 아스카 문화

① 5호의 이동과 동진의 건국

진(晉) 회제(懷帝)는 **영가 5년(311)**에 흉노가 세운 전조(前趙)의 유충에게 사로잡혔다. 이듬해 가필 등이 이미 진왕(秦王) 사마염을 받들어 황태자로 삼고 장안에 도읍을 두었지만, 아직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다가 **영가 7년(313)**에 이르러 회제가 붕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황제를 칭하였으니, 이가 민제이다. 민제(愍帝)는 건흥 4년(316)에 유요에게 항복하였다. 이듬해 **원제(사마예)가 건강(난징)에서 진왕(晉王)을 칭하였지만 역시 제위에 나아가지 않다가, 민제가 붕어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황제를 칭하였다.**

② 효문제의 한화 정책**('천재·금성·미래엔·비상 교과서', p.49·50·42·44)

- 국조가 창업되어 중원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남조와 더불어 천하를 양분한 지 수십 년이 되었다. 하지만 동양왕(東陽王)은 전래의 유풍을 지키며 새로운 법식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풍속을 바꾸는 일, 튀양으로 도성을 옮기는 것, 관제를 고치는 일 등에 이르러서는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 흡족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제** 역시 이를 알기에 다그치지 않고 다만 도리를 들어 깨우치려 하였다.
- 수도에 머물던 관료들에게 “어제 부녀자들의 의복을 보니, 여전히 옷깃이 좁고 소매도 좁았다. …… 이미 한 해가 지났는데, 그대들은 무슨 까닭으로 예전의 호복(호족 복장) 금지 조칙을 어기고 있는가?” 라고 꾸짖었다. - 위수, 『위서』 고조 효문제 본기

③ 도왜인의 이주('비상 교과서', p.25)

- **덴무 10년(682)**, 삼한(三韓)의 사람들에게 조를 내려 “…… 귀화한 첫해에 함께 온 자손도 아울러 역의 부과를 모두 면제한다.” 고 하였다.
- **덴무 14년(686)**, 당인(唐人), 백제인, 고구려인 147인에게 작위를 주었다. …… 귀화해 온 고구려인들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각각 차이가 있었다. - 『일본서기』 권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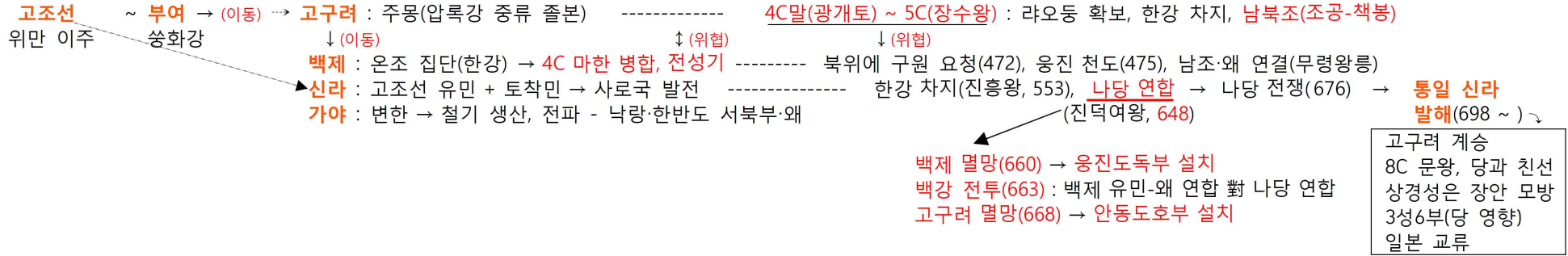
④ 백강 전투**('미래엔 교과서', p.45)

백제(부흥군)는 적이 계획한 바를 알고 여러 장수에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장수 여원군신이 용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여러 장군은 미리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 당(唐)의 장군이 함선 170척을 이끌고 백강에 진을 쳤다. 일본의 수군 중 처음 도착한 배들이 당의 수군과 싸웠지만 불리하여 후퇴하였다. 당군은 좌우에서 수군을 출동시켜 협공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본군이 패하였다. - 『일본서기』 권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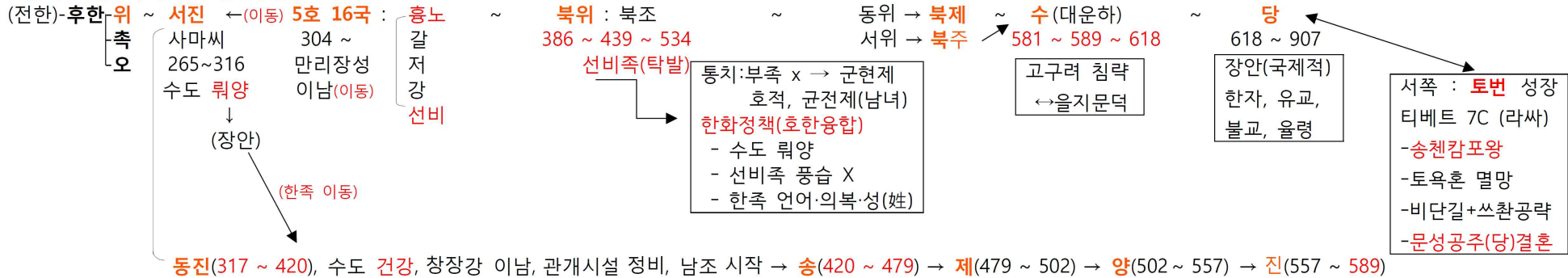
Summary

인구 이동과 교류의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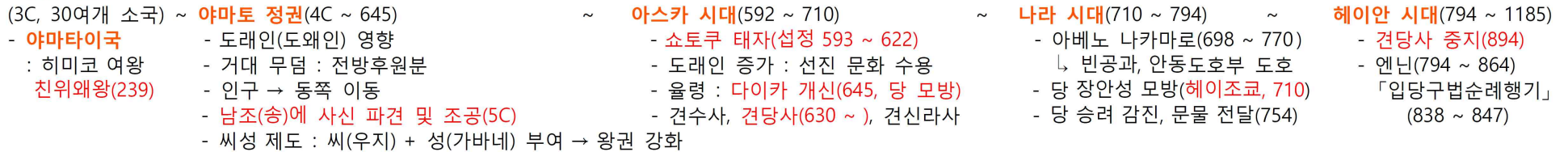
• 만주·한반도



• 중국 북방~화북~양쯔강 이남



• 일본 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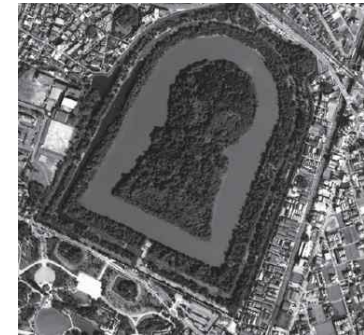


▣ _____의 멸망(668)

보장왕이 천(연)남산을 보내 수령 98인을 거느리고 백기를 들고 (당의) 이적에게 나아가 항복하였는데 …… (당) 고종이 (고구려) 38,300호를 강남·회남·산남·경서 등의 빈 땅으로 옮겼다.

개념 Check

- ① 439년 화북을 통일한 ()는 효문제 때 한화(호한융합) 정책을 통해 농경민과 유목민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려 하였다.
- ② 400년 ()는 신라에 지원군을 보내 왜를 물리치고 가야 지역까지 공격하였다.
- ③ 남북조를 통일한 국가인 ()는 4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④ ()의 송첸캄포왕은 비단길과 쓰촨 지방을 공략하여 당(唐)을 압박하였다.
- ⑤ 645년 왜에서는 나카노오에 황자 주도로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한 ()이 단행되었다.
- ⑥ 663년 왜는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 입구에서 나·당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 ⑦ 668년 고구려 멸망 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698년에 ()를 건국하였다.
- ⑧ 일본은 당(唐)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나라에 (), 교토에 헤이안쿄를 건설하였다.



〈다이센 고분(5세기 중엽)〉

▶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조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 짐이 정말로 제(齊)를 정벌하리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며 도성을 이곳 평성에서 뤼양으로 옮기려는 것이 짐의 본뜻이다. …… 우리의 낡은 풍속을 모두 고치려면 반드시 도성을 옮겨야 한다.
- 이제 북방의 언어를 금지하고 오로지 중원의 언어만 따르도록 하려 한다. …… 현재 조정에 있는 서른 살 이하의 사람은 예전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사용한다면, 마땅히 직위를 낮추고 관계(官界)에서 내칠 것이다.

- ① 당이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 ② 신라가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③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 ④ 흉노가 평성의 백등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일본은 장안성을 본떠 헤이조쿄를 건설하였다.

▶(가)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의 양제는 남녀 백여만 명을 징발하여 운하를 만들었다. 뤼양 서쪽 황제의 정원에서부터 곡수낙수를 끌어들이 황허 강에 이르게 하고, 황허 강의 강물을 끌어들이 화이하 강과 바다로 통하게 만들었다. - 『통전』
- 살수에 이르러 □(가)의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고구려 군사가 후방에서 적군의 후속 부대를 공격하였다. 여기에서 적장 우둔위장군 신세웅이 전사하였다. 이에 여러 부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 『삼국사기』

- ①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남비엣과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 ③ 백제, 왜와 연결하여 당을 견제하였다.
- ④ 사상 통제를 위해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 ⑤ 진(陳)을 멸망시키고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진(陳)을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리니, 양광이 지휘하는 대군이 창장 강 유역까지 남하한 후 진의 도성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 (나) 신라에 군대를 보내 전쟁 중이던 황제는 토변이 안서 4진을 점령하자 서쪽 변방의 방어에도 힘썼다. 그 사이에 전열을 정비한 신라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황제의 군대를 몰아냈다.

- ①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 ②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 ③ 왜가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다.
- ④ 효문제와 수도를 뤼양으로 옮겼다.
- ⑤ 소가씨 세력을 몰아낸 정변이 일어났다.

▶주(周) 대 조공·책봉 관계 성립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연관계를 기초로 정치적 연맹 관계를 맺은 주(周) 왕과 제후 사이에 성립된 관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왕과 제후들 사이에 맺어진 종법적(宗法的) 상하 관계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인(漢) 대 외교 관계의 변화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성 백등산 전투(기원전 200)에서 흉노에 패배 → 흉노와 화친 조약 체결(기원전 198)
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이관(華夷觀, = 화이론) 확립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유교에는 원래 ‘하늘이 덕 있는 자를 군주(天子)로 삼아 천하를 다스리게 한다.’ 라는 통치 이념(천명사상)이 있었다. 그런데 한(漢) 대에는 중국이 문명의 중심인 ‘중화(中華)’ 이고, 그 밖의 지역은 ‘오랑캐(夷)’ 로 보는 화이관(중화사상)이 체계화되었다. 이 두 관념이 합쳐지면서 한의 황제는 천명을 받은 천하의 주인이며, 천하는 모두 그의 교화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한이 주변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면서 주(周)가 국내의 제후들에게 하던 조공·책봉의 형식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한이 주변국을 직접 지배하지 않고 책봉한 것은 직접 통치할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의 형식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인(漢) 대 조공·책봉 외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외교의 틀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로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	--

▶ 위·진 남북조 ~ 수, 당 시기의 국제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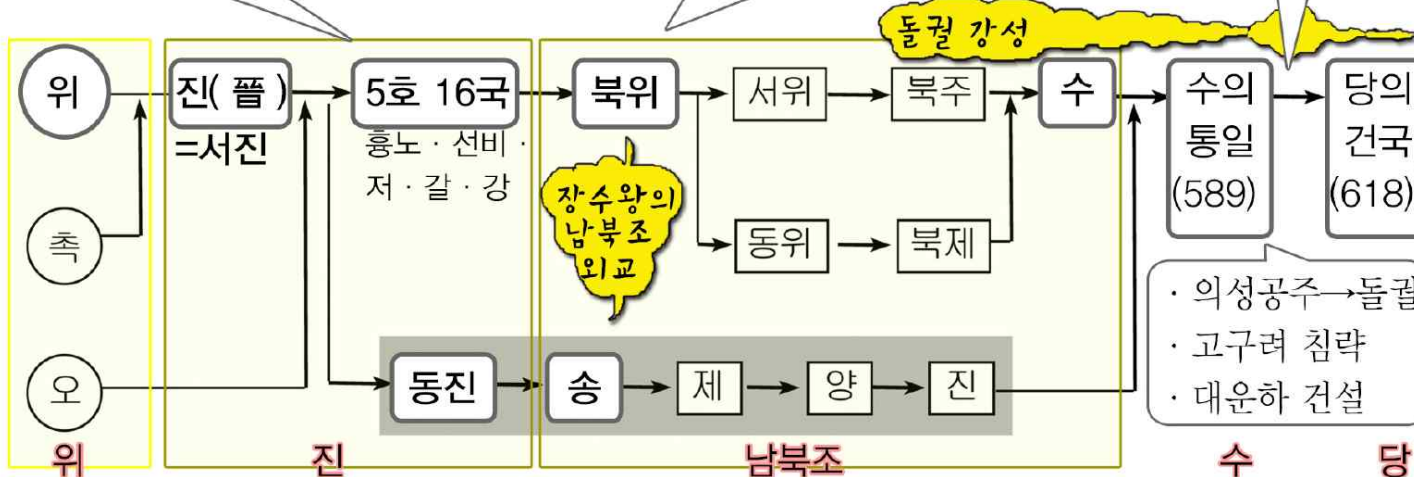
국제 질서의 다원화

중국 중심 질서의 회복

▣ 4세기

▣ 5세기

▣ 6 ~ 7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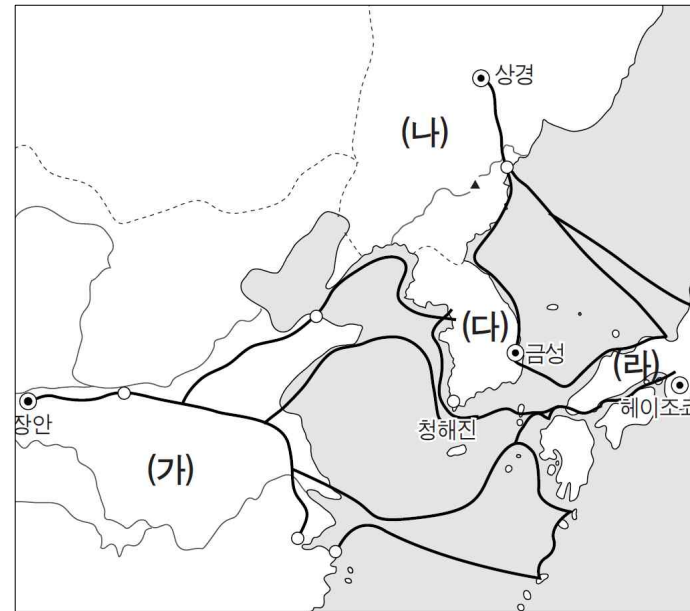


- 당 초기에 돌궐에 신하로 자치
- 문성공주 → 토번 송첸캄포 왕
- 나당 연합군의 백제 멸망(웅진 도독부 설치)
-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멸망(안동 도호부 설치)
- 신라에 계림도독부 설치(한반도 지배 야욕) → 나당 전쟁
- 북부 베트남에 안남도호부 설치

7세기[(가) ____, (나) ____]



8세기 이후[(가) ____, (나) ____, (다) ____, (라) ____]



■ 중원[대운하 개통(610) ⇨ 살수 대첩(612) ⇨ 당 건국(618 ~ 907)]

: 수 멸망(618) → 당(唐)의 재통일

■ 한반도[삼국 시대 ⇨ 신라의 삼국 통일(676)]

: 돌궐 + 고구려 + 백제 + 왜 ⇨ 당 + 신라(648)

: 백제 亡 → 백강 전투 → 고구려 亡 → 안동도호부

■ 일본 열도[호류 사 창건(601 ~ 607)]

: 견수사(607), 견당사(최초, 630) 파견, 다이카 개신(645)

■ 돌궐

: 동돌궐(583 ~ 630, 안북도호부), 서돌궐(583 ~ 657), 킶 테긴 비(732)

■ 토번(7 ~ 9세기)

: 라싸, 송첸캅포, 문성공주[당 태종(재위 626 ~ 49), 640], 토욕혼 정복(663)



■ 중원

: 당(唐, 618 ~ 907), 동아시아 문화권(한자·유교·불교·율령) 형성
↳ 안남도호부(679 ~ 862), 시박사 설치(714 ~)

■ 한반도[남북국 시대]

: 통일 신라(676 ~ 935)

: 발해(698 ~ 926)

■ 일본 열도[나라 ⇨ 헤이안 시대]

: 당(唐)의 문물 수입

↳ 견당사(630 ~ 894)

: 다이호 율령(701)

: 헤이조쿄 천도(나라, 710 ~ 794)

■ 화번공주(和蕃公主)

▷ 흉 노 : 왕소군(한, BC. 33)

▷ 돌 궐 : 안의공주(수, 597)

: 의성공주(수, 599)

: 형양공주(당 태종, 7C)

▷ 토 번 : 문성공주(당 태종, 640)

▷ 위구르 : 함안공주(당 덕종, 788)

① 한(漢)과 흉노(『천재·금성 교과서』, p.58·70)

이 무렵 한나라 장수 가운데 흉노에 투항하는 자가 많았다. 목북은 언제나 대군 일대를 넘나들며 약탈하였다. 한나라 고제(고조)는 고민 끝에 유경을 시켜 종실의 공주를 선우의 연지(왕비)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흉노에게 일정량의 무명, 비단, 술, 쌀 같은 식품을 보내어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 사마천, 『사기』 흉노 열전

② 후한(後漢)과 왜(倭)



57년에 왜의 노국(奴國)이 공물을 가지고 와서 축사를 하였다. 사신은 자기 스스로 대부라 하였다. 노국은 왜국의 남쪽에 있다. **광무제**는 인수(印綬)를 주었다.

- 범엽, 『후한서』동이 열전

③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국 중심 세계관(『천재·미래엔·비상 교과서』, p.56·51·54)

- (동명왕의)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 태왕(광개토 대왕)의 은혜는 크고 넓은 하늘에 미치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쳐도다. …… 백잔(백제)과 신라는 과거 우리의 속민이었기에 조공을 해 왔다. - 광개토 대왕릉비문
- **607년(양제4)** 왜(倭)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 라고 하였다. 수(隋) 양제가 불쾌히 여겨 “앞으로는 오랑캐의 글 가운데 무례한 것은 보고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 『수서』 왜국전
- 백제의 동성왕 20년(498) 8월,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으므로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라에서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하므로 중지하였다. - 김부식, 『삼국사기』 백제 본기

④ 고구려와 돌궐(『천재 교과서』, p.58)

영양왕 18년(607) 초, 수의 양제가 카간(동돌궐의 계민)의 장막에 행차하였을 때 고구려 사신이 카간의 처소에 있었는데, 카간이 사신을 감히 숨기지 못하고 함께 황제를 알현하였다. …… 황제가 칙명을 내리기를 “…… 돌아가면 너의 왕에게 빨리 와서 조회하라고 전하여라. …… 그렇지 않으면 장차 계민을 거느리고 너희 땅으로 순행할 것이다.”

- 김부식,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5 (가) [____], (나) [____]



그림은 티베트의 여러 세력을 통합한 (가)의 송첸캄포가 보낸 사신이 (나)의 황제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보련도(步辇图)』이다. 이 황제가 신하들과 정치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잘 나타나 있다.

6 **돌궐의 외교****(『미래엔 · 비상 교과서』, p.49 · 54)

- 북주(北周, 557 ~ 581)는 돌궐과 화친한 뒤 해마다 막대한 물자를 보냈다. 북제(北齊, 550 ~ 577)도 돌궐이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해 역시 돌궐에 많은 재물을 주었다. 이로 인해 돌궐은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남쪽에 있는 두 아이가 효성을 바치기만 하면 어찌 물자가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 『주서』
- (돌궐의) 사근(카간)이 딸을 북주의 무제에게 보낼 것을 승낙하자 북제도 (돌궐에) 청혼하였다. 북주의 청혼이 수용되어 그 딸이 무제의 황후가 되었다. 돌궐은 북주와 북제 양국을 조종하여 양쪽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냈다. 사근을 이은 타발 카간은 “나에게는 남방에 두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으니 물자가 없어질 걱정이 결코 없다.” 라고 호언하였다. - 『주서』

7 **화번공주**(『미래엔 교과서』, p.52)

- (수 문제) 개황 17년(597) 돌궐의 돌리 가한이 사신을 보내 공주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황제는 사신을 태상시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육례를 가르친 다음, 종실의 딸인 **안의 공주**를 돌리 가한에게 시집보냈다. - 『수서』
- (토번의) 농찬은 돌궐, 토욕혼이 모두 (당의) 공주와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폐물을 갖추어 구혼하였지만,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 (농찬이) 군대 20만을 동원하여 송주를 침범하고, 사자를 보내 예물을 바친 다음 다시 공주를 맞이하고 싶다고 이르게 하였다. …… (태종은) 종실의 딸인 **문성 공주**를 보내기로 하였다. - 『신당서』
- 북방의 만이는 예로부터 대대로 중원에 침범하여 난폭한 짓을 해 왔다. 지금 철륵(돌궐계 부족)의 설연타는 완강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저들에게 화친을 바라게 하여 혼인의 인연을 맺는 것이 좋다. …… 북방 민족의 습속은 여인의 권세가 강하여 무슨 일이든 여인의 주장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내 딸이 자식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내게 외손자가 된다. 외손자라면 반드시 중국에 대한 침략을 일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경 주변이 30년간 무사할 것이다. - 『정관정요』

Check!

당(唐, 618 ~ 907) 대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돌궐 : 몽골고원에서 흥기 → 북주와 북제가 돌궐의 공주를 왕후로 맞이하려고 경쟁 → 수에서 의성공주 파견 → 수의 이간책으로 약화 (돌궐-고구려 연계 움직임) → 당 초기에 당이 돌궐에 대해 신하로 자처 → 당의 이간책과 공격으로 돌궐 제압(돌궐-발해 연계 움직임) → 위구르에 멸망, 켈 테긴 비(돌궐 문자 사용)

무왕 때 당의 산둥반도 공격(돌궐 - 발해 - 일본)
 문왕 때 3성 6부 수용, 상경성(장안성 모방)으로 천도

쇼토쿠 태자는 아스카 문화(7세기초)와 견수사 파견과 관련 있다.

견당사 파견 → 다이카 개신(646년) → 백제 부흥 운동에 지원군을 파견(백강 전투) → 견당사 파견 → **다이호 율령(701년)** → 나라에 당의 장안을 본뜬 헤이조쿄(평성경)을 건설, 나라 시대 개막(710~794년), 당풍 유행 → 헤이안쿄(쿄토) 건설, 헤이안 시대 개막(794~1185) → 당말에 견당사 폐지와 국풍 문화 발달)

신라 사신과 상인들이 규슈의 다자이후를 오가며 신진 문물을 일본에 전래

의상 : 당에 유학하여 신라로 귀국(화엄종 개창)
 원효 : 당에 유학, 불교교리 집대성, 판비량론(중국, 일본에 영향), 아미타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
 현장 : 인도 순례, <대당서역기>, 가져온 경전을 대안탑에 보관 → 명대 소설 <서유기> 관련
 의정과 다이탕당 : 인도 순례
 감진 : 당의 승려로 일본 도다이사에서 계율을 가르침
 혜초 : 신라인으로 당에 유학(밀교), 인도 순례, <왕오천축국전>
 엔닌 : 일본(헤이안시대)에서 당에 유학(장보고의 도움, 산둥반도 법화원에서 기숙), <인당구법순례행기>
 아베노 나카마로 : 안남도호부(북베트남 통치기관)의 도후를 역임
 크영 쯡 푸와 크영 쯡 폭 형제 : 당의 고관을 지낸 안남인
 최치원 : 빈공과에 급제하여 당의 관리가 됨(토황소격문)

송첸캄포 왕 때 번영, 당이 토번에 문성공주를 화번공주로 보냄(티베트에 불교 전파)

북부 베트남은 한무제 이래 중국의 지배를 천 년간 받음 → 당은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여 지배 → 당 멸망 후 5대 10국의 분열기에 응오 왕조가 첫 독립 → 베트남 최초의 장기왕조인 리왕조는 당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임

장안(시안)
 동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신라
 발해
 일본
 당(618~907)
 위구르
 토번
 신라방과 법화원
 신라
 청해전
 일본
 나라시대(헤이안 시대)
 동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안남
 광저우
 광저우

■ 당의 초기 영역
 ≡ 수가 만든 대운하
 ■ 당의 최대 영역

쭉짜, 쭉니 자매의 봉기는 1세기 후한 때

- ※ **교정(646 → 645)**
- 쇼토쿠 태자(574 ~ 622)
 - 현장법사(602 ~ 664)
 - **견당사(630 ~ 894)**
 - 송첸캄포(? ~ 649)
↳ **당, 문성공주, 640**
 - **백강 전투(663)**
 - 다자이후(규슈, 671 ~)
 - 시박사 설치(714 ~)
 - 발해 고왕(①, 재위 698 ~ 719)
 - 발해 무왕(②, 재위 719 ~ 737)
↳ 산둥 반도 공격(732)
 - **발해 문왕(③, 재위 737 ~ 793)**
↳ 상경성 천도(755)
↳ **발해 국왕 책봉(762)**
 - **안남도호부(679 ~ 862)**
 - 아베노 나카마로(698 ~ 770)
 - 최치원(85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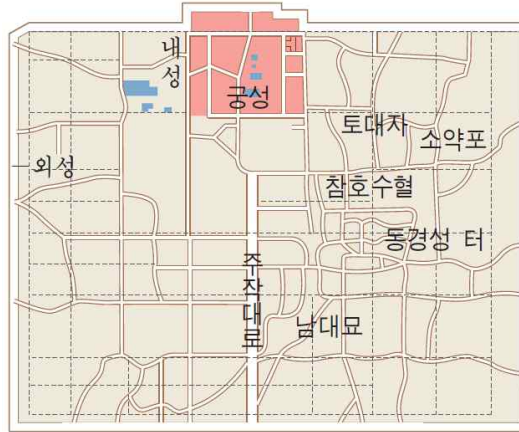
Check!

당(唐) 대의 문화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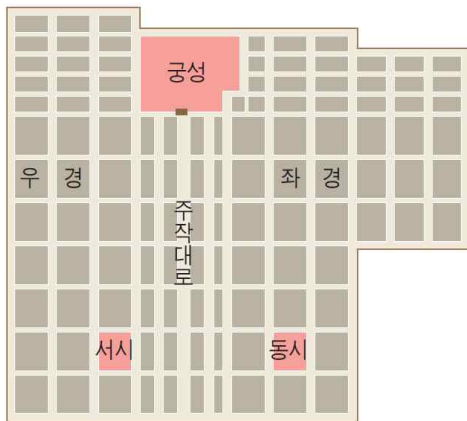
▣ 당, 발해, 나라 시대의 도성 구조



<당의 장안성>



<발해의 상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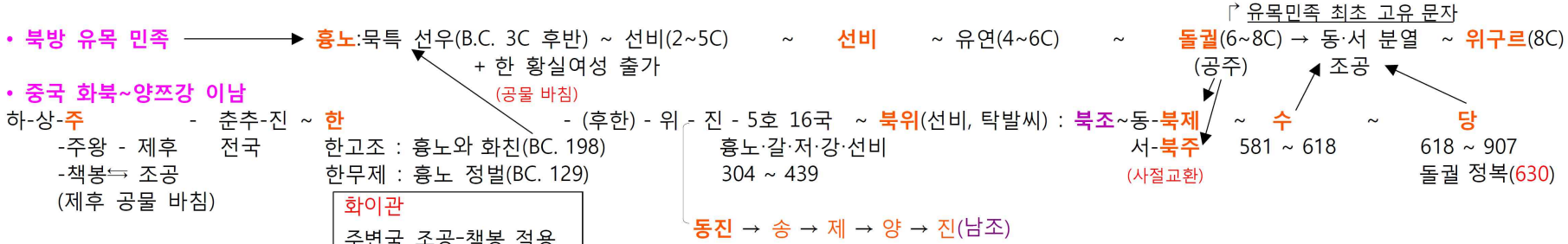
<나라의 헤이조쿄>

▣ 당 대의 대외 관계



Summary

국제 관계의 다원화(1)



화이관
주변국 조공-책봉 적용
의례적 관계(직접 지배X)

한 - 국제관계
· 군사적 점령, 지배-고조선, 남비엣
· 조공-책봉 모두 : 왜(한위노국왕 금인)
· 조공사절만(교역) : 흉노, 서역 국가

• 만주 · 한반도

고구려 : 남북조 모두 조공책봉(장수왕),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 연호 사용, 백제·신라에 조공 요구
백제 : 남조와 조공책봉, 왜와 밀접, 탐라로부터 조공
신라 : 백제의 중개로 남조와 조공책봉(521), 통일 후 당과 조공책봉 관계
발해 : 주변 말갈 부족에게 복속 강요, 당과 전쟁(무왕) → 당과 친선(문왕), 신라와 교통로 개설 일본과 사신 교환

• 일본 열도

왜
- 후한 광무제가 하사 : 한위(왜)노국왕 금인(57) → 한과 조공-책봉 관계
- 남조와 책봉 관계[송(420 ~ 479)]
- 신라 · 백제와 사절단 교환, 수에 국서 전달(쇼토쿠 태자 → 양제, 607)
- 견수사, 견신라사, 견당사 파견(630 ~ 894)
- 신라와 발해를 조공국으로 간주하여 외교적 마찰

기원전 2 ~ 3세기

- 한 고조 : _____와의 전쟁 패배 → 화번공주와 물자를 주고 화친
- 한 무제 : 흉노 정벌, 남비엣과 고조선 정복
- : 조공 · 책봉 외교 → 유교적 통치 이념과 _____에 바탕



3 ~ 6세기

- 북조와 남조 : 주변국과 조공 · 책봉 관계 체결
- ↳ 실리를 고려하여 책봉국 선택
- : 서로의 사절을 조공 사절로 취급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 · 책봉 관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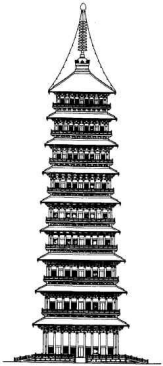
7 ~ 9세기

- 당(618 ~ 907) : 주변국과 조공 · 책봉 관계, _____공주 파견
- 돌궐, 위구르, 토번 → 당과 _____관계만 체결
- 신라 · 발해 : 상호 교류, 당과 조공 · 책봉
- 일본 : 견당사(630 ~ 894) 파견

개념 Check

- ① 한 무제는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 ()의 형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 ② 남북조는 서로 사절을 교환하였고, 상대국 사절을 () 사절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 ③ 521년 ()는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양(梁, 502 ~ 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 ④ 중원 왕조가 정략상 인접 국가의 왕에게 시집보낸 황제나 황족의 딸을 ()라고 한다.
- ⑤ 일본은 당에 대규모 사절단인 ()를 보내 문물을 수용하였다.

▶(기)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가] 황실이 튀양에 세운 영녕사의 9층 목탑 상상도이다. 선비족이 세운 이 나라는 화북을 통일한 이후 남제 정벌을 내세워 튀양으로 천도하였다. [가]은(는) 튀양에 영녕사를 비롯해 1,300여 사찰을 둘 정도로 불교를 중시하였다.

- ①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다.
- ② 고구려와 조공·책봉의 관계를 맺었다.
- ③ 위구르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 ④ 왕망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⑤ 유연을 격파하고 중앙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가), (나)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둔황에서 발견된 『대승무량수종요경(大乘無量壽宗要經)』이라는 불경으로, [가]의 고유 문자로 작성되었다. 인도 문자를 바탕으로 한 이 문자는 송첸캄포(농찬) 때 창제되었다고 전해진다. 송첸캄포는 [나]의 문성공주와 혼인하고 중국의 예법과 기술 등을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문자를 발전시켜 나갔다.

- ① (가) -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 ② (가) - 왜의 노국왕에게 금인을 하사하였다.
- ③ (나) -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 ④ (나) -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여 조공국을 확대하였다.
- ⑤ (가), (나) - 시박사를 두어 해상 무역을 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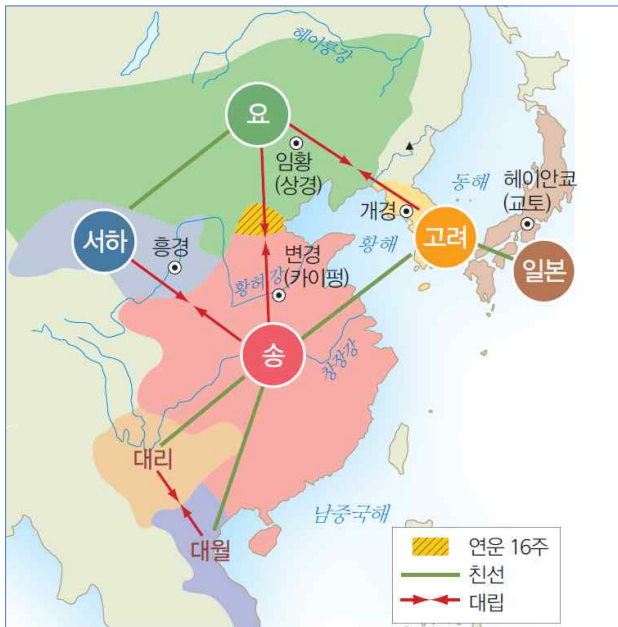
▶다음 지료를 모두 활용에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자,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 가 토벌하였다. - 광개토대왕릉비문
- 백제의 동성왕이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으므로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 『삼국사기』
- 왜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 라고 하였다. - 『수서』

- ① 유목민과 농경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 ② 도래인(渡來人)이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③ 중원 왕조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가 형성되었다.
- ④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갖고 있었다.
- ⑤ 한반도에서의 인구 이동이 새로운 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야율아보기의 요 건국(916) ⇨ 발해 정복(926) ⇨ 동단국 수립(926) ⇨ 연운 16주 차지 (~ 석경당, 936) ⇨ 북송과 전연의 맹약 체결(1004) ⇨ 멸망(1125)

거란은 랴오허 강 상류에 살던 유목민으로, 10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다. 야율아보기(? ~ 926)는 당 말 ~ 5대의 혼란을 피해 거란의 영역으로 망명한 한인(漢人)들의 협력을 얻어 세력을 축적한 후 마침내 거란족 전체를 통일하였다. 이어 칸의 자리에 올라 독립 국가를 세우고, 916년에는 중국을 모방하여 황제라 칭하였다. 그는 동서로 원정에 나서 서남방으로 탕구트 등을 제압하고 세력 범위를 오르도스 지방까지 확장시켰다. 이후 요(遼)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여 송(宋)을 압박하였으며, 고려를 여러 차례 침공하였다. 통화 22년(1004) 송은 매년 20만 필의 비단과 10만냥의 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란과 형제 관계의 맹약을 맺었다. 거란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시행하였다. 거란은 농경민과 유목민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남면관제(농경민)·북면관제(유목민)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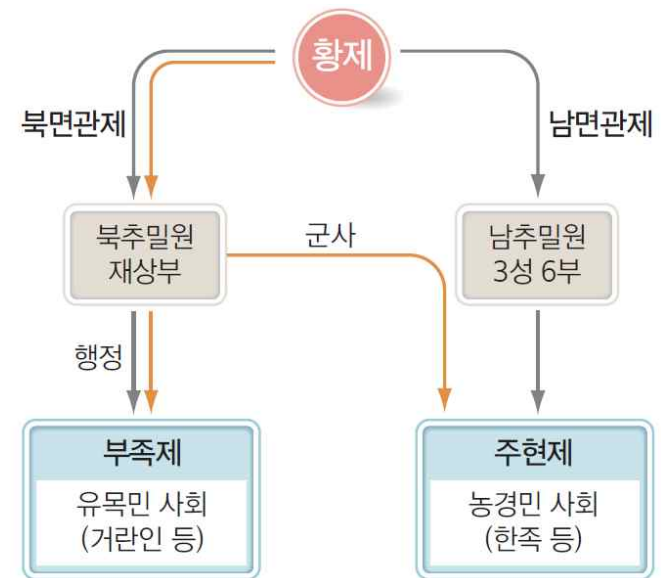


<11세기의 동아시아>

↳ 대리(937 ~ 1253)



<연운 16주[유주(연주) = 베이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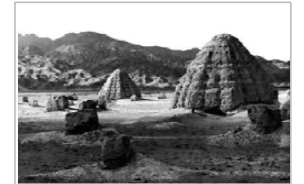
<북면관 · 남면관제>

Chapter. 11 - 3

탕구트(西夏, 강족에서 분리)의 성장**

서하 건국(조원호, 1032) ⇨ 칭제건원(이원호, 1038) ⇨ 북송과 강화 조약(군신 관계, 1044) ⇨ 둔황 장악, 중계 무역으로 번성 ⇨ 칭기즈칸에 멸망(1227)

11세기에 탕구트가 세운 서하(西夏)는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 교역을 통해 발전하였다. 서하는 거란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평화를 유지하였지만, 송과는 책봉과 교역을 둘러싼 마찰로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송은 매년 은과 비단, 차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하와 화약(경력의 화약, 군신관계, 1044)을 맺었다.



<서하 왕릉(홍경)>

Chapter. 11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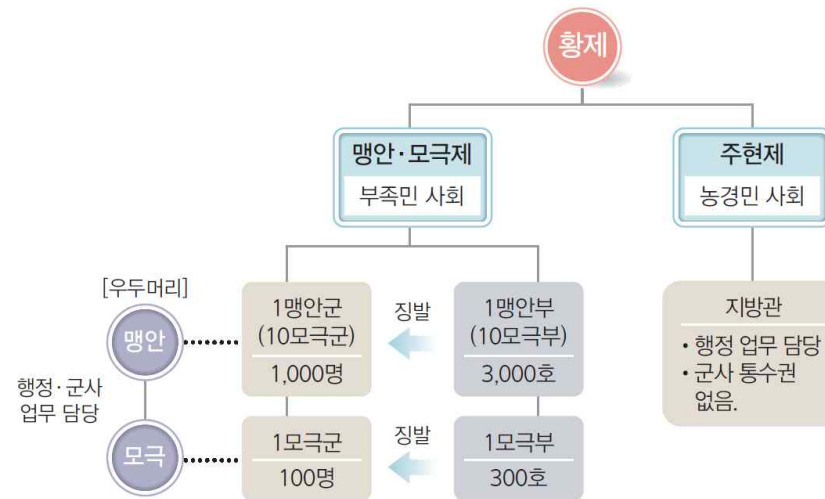
여진(金)의 성장**

금 건국(1115) ⇨ 요 정복(1125) ⇨ 북송 정복(1126) ⇨ 중도 천도(1153) ⇨ 카이펑 천도(1157) ⇨ 중도 천도(1161) ⇨ 카이펑 천도(1214) ⇨ 멸망(1234)

여진은 만주 일대에서 수렵과 농경에 종사하던 민족으로, 완연부의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여 금(金)을 세웠다. 금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노리던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무너뜨리고, 송마저 공격하여 멸망시킨 뒤 화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거란 대신 동아시아의 강자가 된 금은 비단과 은 등 막대한 물자를 받는 조건으로 강남 지방에 세워진 남송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소흥화의, 군신 관계, 1142). 고려와 서하도 금에 조공(군신 관계 체결)하고 교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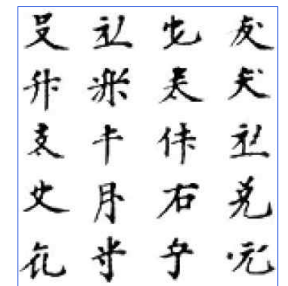


<12세기의 동아시아>



<맹안·모극제>

금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시행하였다. 전통적인 씨족 조직이자 군사 조직인 맹안·모극제로 여진족을 다스렸고, 한족 등의 농경민을 주현제로 통치하였다.



<여진 문자>

북송 건국(카이펑, 960 ~) ⇨ 태조의 문치주의 정책 ⇨ 태종(2)의 5대 10국 시대 통일(979) ⇨ 진종(3) 대 전연의 맹약 체결(1004) ⇨ 신종(6) 대 왕안석의 신법(1069) ⇨ 정강의 변(흠종(9), 1126) ⇨ 남송 건국[고종(1), 임안(항저우), 1127] ⇨ 소흥화의[고종(1), 1142] ⇨ 남송 멸망[소제(9), 1279]

북송은 문치주의를 내세워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고 황제권의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북방 민족 국가보다 군사력이 열세에 놓이자, 그들과 맹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물자(세폐)를 제공하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11세기에 왕안석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신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을 둘러싸고 당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국력이 약해졌다. 1126년 북송이 멸망한 후 1127년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남송이 세워졌다. 남송은 금과의 전쟁을 꺼려 군신 관계를 맺고 매년 25만 필의 비단과 25만 냥의 은을 바쳤다. 그러나 여러 차례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등 두 나라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지문 확인

북방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외교 질서

1 전연의 맹약(『천재·미래엔 교과서』, p.61·55)

- 송의 황제와 요의 황제는 형제의 교분을 갖는다.
- 송은 요에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보낸다.
- 양국의 국경은 현 상태로 한다.

- 『속자치통감장편』 권 58

거란과 강화하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 거란에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서로 남조와 북조로 칭하기로 하였다.

- 『송사』

2 [가]와 [나]

수도를 포위당한 [가]이(가) [나]에 큰아버지와 조카 관계를 서약한 국서(國書)를 보내고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 얼마 후 [가]이(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 [나]을(를) 공격하였지만 오히려 수도(카이펑)가 함락되고 황제가 사로잡혔다. 이에 일부 황족이 강남으로 옮겨 가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삼았다.

3 소흥화의(1142)

지금 [가]와(과) [나]은(는) 화의를 맺어 하이허 강(淮水)과 대산관을 잇는 선으로 국경을 정합니다. 아울러 [가]은(는) 대대손손 삼가 신하의 절의를 지켜 [나] 황제의 탄신일과 정월에 사절을 보내 문안 인사를 여쭙고, 매년 봄에 비단 25만 필과 은 25만 냥을 보내겠습니다.

건국(왕건, 918) ⇨ 후삼국 통일(936) ⇨ 만부교 사건(거란에 대한 강경 정책, 942) ⇨ 과거제 실시(958) ⇨ 북송과 수교(962) ⇨ 거란의 제1차 침입(993)
 ⇨ 강동 6주 획득(서희, 994) ⇨ 강조의 정변(목종 폐위, 1009) ⇨ 거란의 제2차 침입(1010) ⇨ 거란의 제3차 침입(1018) ⇨ 귀주 대첩(강감찬, 1019) ⇨
 천리장성 축조(1033 ~ 1044) ⇨ 별무반 조직(윤관, 1104) ⇨ 동북 9성 축조(1107) ⇨ 금과 군신 관계 체결(1126) ⇨ 몽골의 침입(1231 ~ 1270)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뒤 고려에 친선을 요구하자, 복진 정책을 추진하던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거란은 북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993년 고려를 침공하였다. 고려의 서희는 송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조건으로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화약을 맺었다. 이때 고려는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강동 6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거란은 두 차례 더 고려를 침공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물리쳤다. 이후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고려는 거란과 조공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였다. 여진이 성장하면서 고려를 위협하자, 윤관(? ~ 1111)은 이들을 물리친 후 동북 지역에 9성을 축조하였다. 이후 여진은 세력을 키워 금(金)을 건국하고 고려에 사대를 요구하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찬반 의견의 대립 끝에,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금에 조공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과 금에 대한 조공과는 별도로 여전히 송 및 남송과 해상 교역을 유지하면서 각종 문물을 교류하였다.



〈척경입비도〉

① 994년 서희의 외교 담판(『천재 교과서』, p.61)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소.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랴오허강 중류 부근)이 모두 우리 땅이거늘 어찌 침범이라 하리오. 또 압록강의 안팎도 모두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거주하면서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은 다음에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하면 어찌 (그대 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지 않으리오.

- 『고려사』 서희 열전

② 고려와 여진의 관계(『금성 교과서』, p.74)

- (1109년) (고려는) “너희가 9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하늘에 대고 맹세하라.” 라고 하였다. 추장 등은 함주 성문 밖에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금 이후 대대손손까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망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 (1126년) 백관을 불러 금을 섬길지 말지를 의논하니 모두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겸·척준경 두 사람만 사대를 주장하자 (임금 인종은) 이를 따랐다.

- 『고려사』

개념 Check

- ① 5대 10국의 분열 시대는 조광윤이 세운 ()에 의해 수습되었다.
- ② 1004년 송(宋)은 ()과 전연의 맹약을 통해 형제 관계를 체결하고 은과 비단을 바쳤다.
- ③ 거란은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여 유목민과 농경민을 ()로 나누어 다스렸다.
- ④ 1032년 중국의 서쪽 지역에서 탕구트 족이 ()를 건국하였다.
- ⑤ 1115년 아구다(阿骨打)는 여진을 통일하고 ()을 건국하였다.
- ⑥ 거란, 탕구트, 여진 등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⑦ ()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 국력이 쇠퇴한 북송은 금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⑧ 1126년 금의 공격으로 북송의 수도 ()이 함락되었으며, 이후 남송이 수립되었다.
- ⑨ 요의 제1차 침입 때 고려의 서희는 외교 담판으로 ()를 확보하였다.
- ⑩ 고려는 1104년 윤관의 건의로 ()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
- ⑪ 몽골에 침입에 대응하여 고려는 1232년 ()로 천도하였다.
- ⑫ 고려에서는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가 끝까지 항전하였다.
- ⑬ 가마쿠라 막부는 지방에 토지 관리와 조세 징수를 위해 ()를 파견하였다.
- ⑭ 1192년 ()가 일왕에게 쇼군(정대장군)의 칭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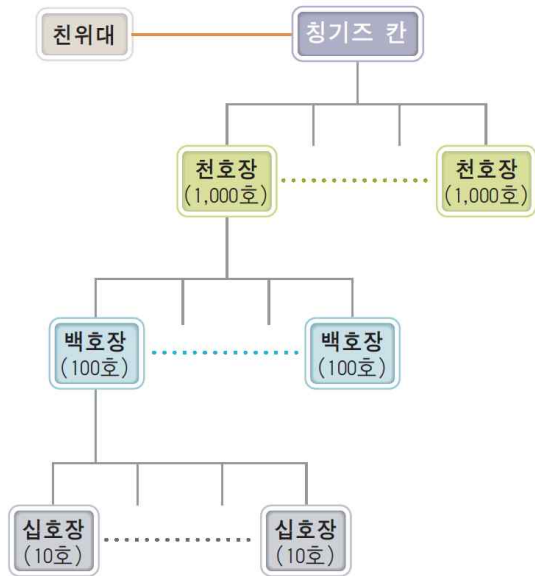
▶(가), (나) 국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은(는) 과거에 북면관만 있었다. 이후 연주(燕州)와 운주(雲州) 등 16주를 얻고서 당의 제도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3성 6부, 어사대, 동궁 등 남면의 관제를 두었다. 진실로 제왕의 성업을 이루고자 하여 당의 제도로써 한족(漢族)을 위무하여 따르게 하였던 것이다.
- 군대 조직의 숫자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정해진 제도가 없었다. [나]의 태조가 즉위한 이듬해 300호를 모곡으로 하고, 10개의 모곡을 맹안으로 삼게 하였다. 이후 주변 부족이 항복해 오자 맹안과 모곡의 명칭을 각 수령에게 주어 그 주민을 다스리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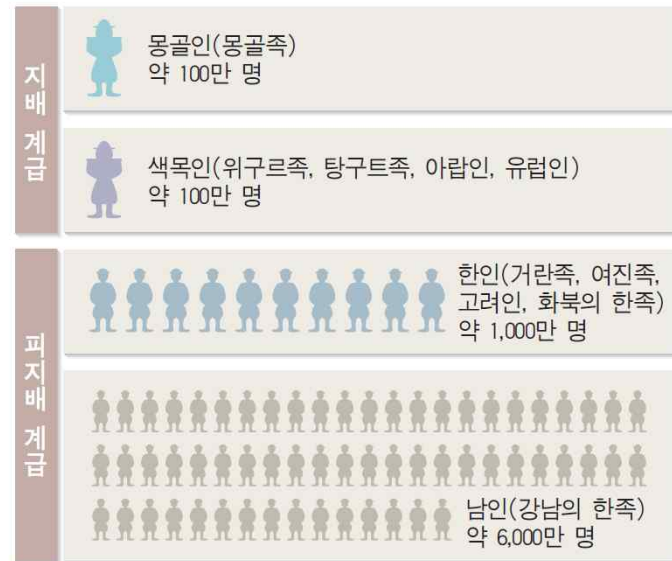
- ① (가) - 발해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 ② (가) -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 ③ (나) - 왜와 연합하여 백강 전투에 참여하였다.
- ④ (나) - 무로마치 막부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 ⑤ (가), (나) - 송과 형제 관계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테무친의 부족 통합과 몽골 제국 수립(1206) ⇨ 금과 화친 조약 체결(1214) ⇨ **금의 연경 함락(1215)** ⇨ 호라즘 정복(1220) ⇨ 서하 정복(1227) ⇨ 금 정복(1234) ⇨ 베트남 제1차 침입(1257) ⇨ 고려 복속(1270) ⇨ 삼별초의 대몽 항전(1270 ~ 1273) ⇨ 국호 ‘대원’ (1271) ⇨ 베이징 천도(1272) ⇨ 여·원 연합의 일본 원정(1274·1281) ⇨ 남송 멸망(1279) ⇨ 베트남 제2차 원정(1284) ⇨ 베트남 제3차 원정(바익당 강 전투, 쩌흥다오, 1287) ⇨ 멸망(1368)

13세기 초 몽골 초원 지대에서 테무친이 몽골계 부족들을 통합하고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다(1206). 그는 자신의 나라를 **예케 몽골 울루스(Ulus)**, 즉 대원대 몽골국(大元大蒙古國)이라 불렀다. 칭기즈 칸은 **천호·백호제를 군사적 기반으로 하여** 대외 정복에 나섰다. 먼저 **서하를 공격하여 조공을 받고 금을 침공하였다.** 이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그의 후계자들은 동유럽의 키예프 공국을 점령하여 초원길을 손에 넣음으로써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오고타이(우구데이) 칸(재위 1229 ~ 1241)**은 몽골 사신 저고여 살해 사건을 계기로 1231년 **고려를 침공**하는 한편, 1234년에는 **금을 멸망시켜(채주 점령) 유목민 세계를 통합**하였다. **1270년 쿠빌라이 칸(재위 1260 ~ 1294)**은 **고려를 복속**한 후 **1279년 남송을 정복하여(중국 전역 지배)**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또 고려·몽골 연합군을 조직하여 1274년과 1281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하였다. 그러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실패하였다. 몽골군은 3차례[1257(몽케 칸), 1284·1287(쿠빌라이 칸)]에 걸쳐 대월(쩐 왕조)을 침공하였지만, **쩐흥다오(1228 ~ 1300)의 활약으로 저지**되었다. 그 후 대월의 찐 왕조(1225 ~ 1400)는 전쟁을 피하고자 몽골에 조공 사신을 보냈다. 이어 몽골은 **자와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위세에 힘입어 해상 교역로(바닷길)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천호·백호제〉



〈원(元)의 주민 분류〉

몽골 제국은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제국 전역에 **역참(驛站)**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의 명령이 제국의 전 지역에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지역의 사정이 중앙으로 보고되었다. 역참 제도는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몽골 제국이 안정되면서 교역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초원길이나 비단길**에 동서 교역을 독점하거나 방해하던 국가나 세력이 사라져 **동서 교역이 안정**되었다. 바닷길을 장악한 원은 **항저우, 취안저우, 칭다오 등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동아시아 각지로 향하는 무역선을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일본, 대월,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교역망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인도양 교역망과 연결되고, 다시 지중해 교역망으로 연결되었다. 교역이 발달하자 단일 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몽골 제국은 초기부터 **교초(交鈔)를 발행**하였다. 특히, 쿠빌라이 칸 때 발행한 교초(**중통원보**)는 금이나 은과 교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화폐였으므로, **몽골 제국 전역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동서 교역의 영향으로 문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서아시아의 **천문학, 역법, 지도학 등이 원에 소개**되었고, 그 영향으로 **수시력(授時曆, 광수경, 1281)이 만들어졌다**. 이슬람의 과학은 원을 거쳐 고려에 전해졌고, **조선**에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와 『**칠정산**』(1442) 등을 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마르코 폴로(1274)와 이븐 바투타(1344) 등이 입국**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몽골 제국의 주요 교통로〉



〈교초〉



〈패자(패자)〉

신석기	청동기	반랑국	어우락 왕국	남월국	40 ~ 43	응오 왕조	리 왕조	쩐 왕조
풍응우옌 문화	동썌 문화	흥 브엉 건국 동썌 문화 기반	안 즈엉브엉 남월국에 멸망	기원전 203 ↳ 짜에우다 건국 기원전 111년 멸망 ↳ 한9군 설치	쯩 자매의 봉기 후한 광무제의 진압	939년 성립 ↳ 5대 10국의 분열로 독립	1009 ~ 1225 과거제 실시 국호 '대월'	대몽 항쟁 승리 : 쩐흥다오 쯔놈 문자 『대월사기』

응오 왕조(939 ~ 944) ⇨ 딘 왕조(968 ~ 980) ⇨ 전 레 왕조(980 ~ 1009) ⇨ 리 왕조 성립(1009 ~ 1225) ⇨ 문묘 건설(1070) ⇨ 과거제 도입(1075) ⇨ 국자감 설치(1076) ⇨ 쩐 왕조 성립(1225) ⇨ **몽골의 제1차 침입(1257)** ⇨ 『대월사기』 편찬(1272) ⇨ **몽골의 제2차 침입(1284)** ⇨ **몽골의 제3차 침입(바익당강 전투, 1287)** ⇨ 쩐 왕조 멸망(1400) ⇨ 호 왕조 수립(1400) ⇨ 호 왕조의 멸망과 명의 지배(1407 ~ 1427) ⇨ 후 레 왕조 성립(1428 ~ 1788)

▣ 몽골의 침략과 베트남의 저항(『천재교과서』, p.62)

쩐흥다오(1228 ~ 1300)는 쩐 왕조(1225 ~ 1400)의 장군으로, 3차례에 걸친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몽골의 제1차 침입(몽케 칸, 1257) 때 대월의 북방을 굳게 지켰다. **몽골의 제2차 침입(쿠빌라이 칸, 1284)** 때는 수도 탕롱(지금의 하노이)이 함락되고 황제(인종, 재위 1278 ~ 1293)까지 항복을 고려하자, 50만 대군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격장사(檄將士)』라는 유명한 글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해 **몽골군을 대파하고 탕롱을 탈환하였다.** 몽골군의 제3차 침입 때(1287)는 소수의 병력이었음에도 탁월한 전략으로 몽골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오늘날 베트남 사람들은 쩐흥다오를 흥다오 대왕으로 신격화하여 베트남의 독립을 지킨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다.



〈쩐흥다오 동상(호찌민)〉

개념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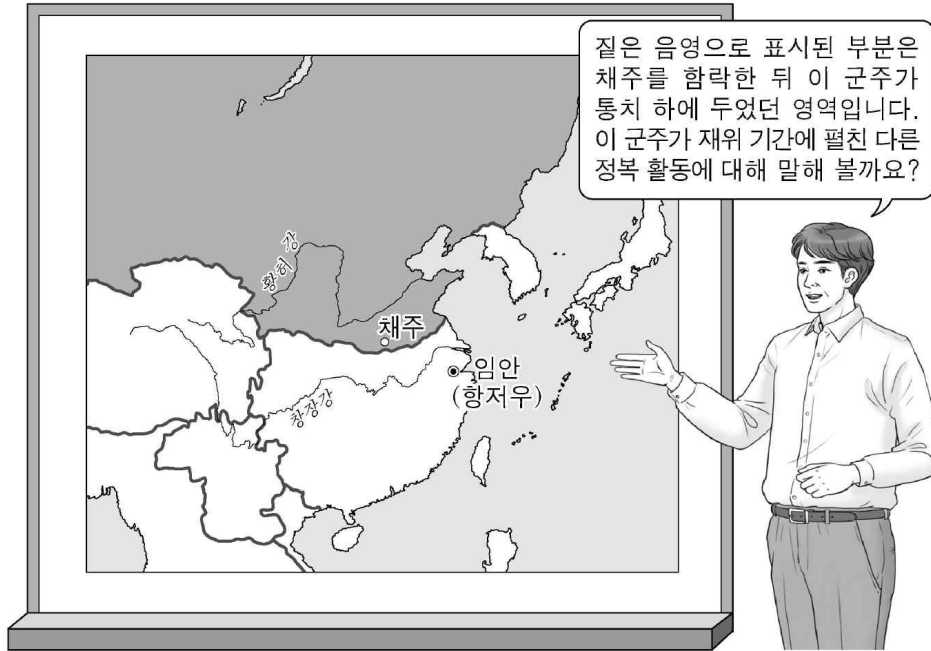
- ① 1206년 테무친은 쿠릴타이에서 ()으로 추대되었다.
- ② 원은 지방에 ()를 파견하여 다스렸고, 고려에도 이들을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 ③ 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로 옮겼고, 국호를 대원으로 바꾸었다.
- ④ 몽골은 주요 간선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을 설치하였다.
- ⑤ 원 대에 항저우, 취안저우, 칭다오 등지에 ()가 추가로 설치되어 해상 교역을 관장하였다.

▶(기)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체제를 정비한 그는 서하를 복속한 후 화북으로 향했다. 이에 [가]은(는) 위소왕의 딸 기국공주를 보내고 아울러 금, 비단, 말 3천 필 등을 바치며 강화를 맺었다. 그러나 얼마 후 [가]이(가) 남쪽의 카이펑으로 천도하자, 그는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중도(연경)를 함락하였다.

- ① 발해를 멸망시켰다.
- ② 맹안·모곡제를 시행하였다.
- ③ 당에게 화번공주를 요구하였다.
- ④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 ⑤ 거란(요)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블라카를 점령했어요.
- ② 거란(요)을 정복했어요.
- ③ 일본 침공을 단행했어요.
- ④ 고려로 원정군을 파견했어요.
- ⑤ 서하를 공격하여 굴복시켰어요.

▶14세기 이후 국제 관계의 변화

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적인 재정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원의 약화 → 백련교도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반란 → 홍건적의 난(1351 ~) • 명(明) 건국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각지의 반란 세력을 통합하고 대도(大都) 점령 → 난징에 도읍하여 건국(1368) ↳ 홍무제(①, 재위 1368 ~ 1398) → 황제 권력 강화, 몽골 세력 축출, 한족 문화 회복 노력, 향촌 질서 정비(이갑제) ✓ 영락제(③, 재위 1402 ~ 1424) : 정난의 변, 자금성 건설과 베이징 천도(1421), 몽골 공격, 대월(베트남) 침공 점령(1407), 『영락대전』 편찬[유서(類書), 1407] : 정화(환관, 무슬림)의 항해 추진(1405 ~ 1433) → 조공·책봉 체제의 확대, 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질서 수립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민왕(⑧, 재위 1351 ~ 1374)의 반원 자주화 정책 ✓ 몽골의 풍습 금지, 기철 등 친원 세력 축출, 쌍성총관부 지역 무력 수복(1356) ✓ 권문세족의 반발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실패 → 신진사대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 정도전 등 혁명과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의 연합, 위화도 회군(1388) ⇨ 건국(1392) ⇨ 한양 천도(1394) ✓ 초기 요동 정벌 추진(1396)으로 명과 갈등 ⇨ 1401년 태종(③, 재위 1400 ~ 1418) 때 명과 조공·책봉 관계(事大) 형성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다이코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지 연합 ⇨ 가마쿠라 막부 붕괴(1333) ⇨ 무로마치 막부 성립(아시카가 다카우지, 교토, 1336) ② 교토(고곤 → 고묘 → 고코곤 → 고엔유 천황) ⇨ 요시노(고다이코 → 고무라카미 → 조케이 천황), 남북조의 분열(1336 ~ 1392) ③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재위 1368 ~ 1394) ↳ 남북조 통일(1392),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 확립 → 일본 국왕 책봉(명 건문제, 1401) → 명과 감합 무역 시작(1404 ~ 1547)
북부 베트남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 왕조(1400 ~ 1407) ⇨ 후 레 왕조(1428 ~ 1788)

명(1368)과 조선(1392)이 건국되고,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됨(1336)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명은 각지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하였고, 조선·일본·대월·류큐 등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조공·책봉 관계가 성립**되었다. 명은 조공 이외의 민간 교역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므로, 몽골 제국 시기보다 동서 교류와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대교린을 추구한 조선은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 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여진·류큐(1429 ~ 1879) 등과 교류하였다. 일본은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공 질서에 참여하였다.** 명의 침공을 물리친 대월에서는 **레 왕조(1428 ~ 1788)**가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명의 문물을 도입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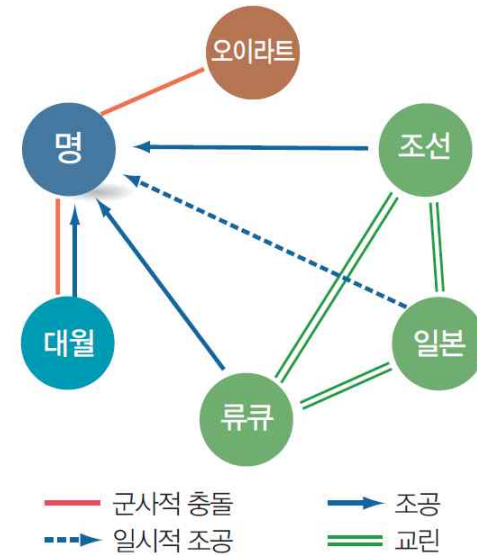
Check!

명(明)의 조공 질서 확립



<정화의 항해로, 명(明) 중심의 조공 질서>

정화(1371 ~ 1433)는 영락제의 명에 따라 1405년 첫 항해에 나선 뒤 143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항해에 나섰다.** 그의 함대는 동남아시아(블라카),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해안의 말린디까지 항해하였고, **여러 나라를 조공·책봉 체제로 끌어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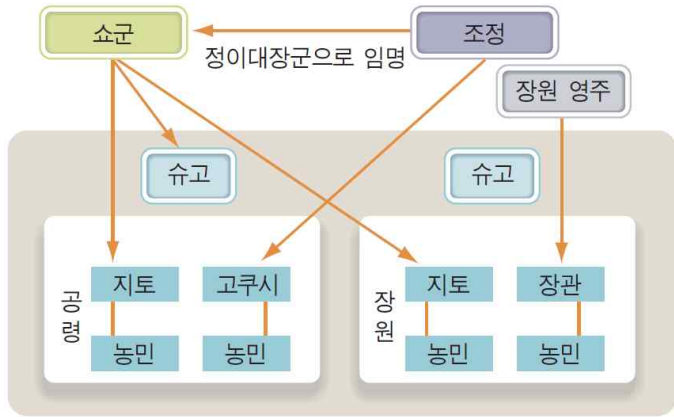
▣ 명과 조선의 사대(事大) 관계(『금성 교과서』, p.81)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행차하여 잔치를 베풀고 명나라 사신(진가유)을 맞이하였다. 임금이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후문의 야인은 대대로 변방의 걱정이 되었으므로 조종으로부터 칙지를 받들어 위로하고 무마하여 변방의 백성을 편안케 했던 것뿐이고, 우리가 불러들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한참 동안 서서 이야기하다가 임금이 돌아오려고 하니, 명나라 사신이 전송해서 중문까지 이르렀다. 임금이 또 지극한 정성으로 사대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하니, 진가유가 말하기를, “정성이란 것은 대국도 섬길 수가 있고, 소국도 섬길 수가 있으며, 이웃 나라와 교제할 수도 있으니, 전하의 말이 정말 옳습니다.” 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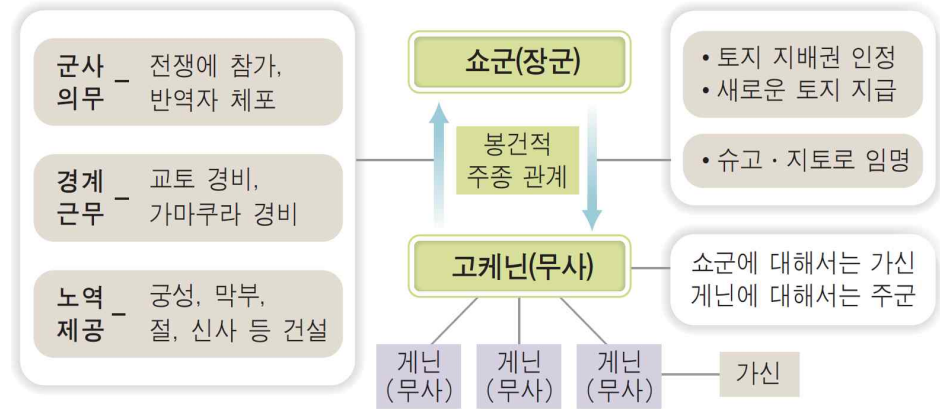
- 『세조실록』

Check!

일본 - 조정(덴노)과 막부(쇼군)의 이원적 지배 체제



〈막부와 조정의 이원적 지배〉



〈쇼군과 고케닌의 관계〉



일본 역사의 흐름

- 592~709 아스카 시대
- 710~793 나라 시대
- 794~1185 헤이안 시대
- 1192~1333 가마쿠라 막부 시대
- 1336~1392 남북조 시대
- 1338~1573 무로마치 막부 시대
- 1467~1477 오닌의 난
- 1467~1590 센고쿠 시대
- 1603~1867 에도 막부 시대



〈여·원 연합군의 일본 원정〉

Summary

국제 관계의 다원화(2)

• 중국

당 ~ 5대 10국 ~ 절도사 난립 후량 ~ (907 ~ 979)	요(거란) ~ 916 ~ 1125 야율아보기 발해 멸망(926) 연운 16주(936) 북면관·남면관 전연의 맹약 ↳ 세폐, 1004 거란 문자 고려 침입	북송(한족) ~ 960 ~ 1127 조광윤 문치주의 : 절도사 억제 황제권 강화 : 과거 → 전시 수도 카이펑 (= 개봉, 변경)	서하(탕구트족) ~ 조원호, 1032 ~ 1227 북송, 은·비단(세폐) 서하 문자, 중계 무역 거란에 조공	금(여진) ~ 아구다, 1115 ~ 1234 송과 연합 → 요 멸망 정강의 변(흠종, 1126) (=항저우) 고려·서하, 남송 굴복(군신관계) 여진 문자 맹안모극제, 군현제 (1맹안=10모국)	남송(한족) ~ 1127 ~ 1279 수도 임안 (=항저우)	몽골 제국(원) ~ 1206 ~ 1368 (백련교의 난) 칭기즈칸 천호·백호제 호라즘 정복(서역) 서하·금·대리 정복 비단길 장악 원[쿠빌라이칸(재위 1260 ~ 1294), 1271] 대도(베이징) 천도(1272) 일본 원정(1274, 1281) 남송 정복(1279) 대월 침략(1284, 1287) 행성(행중서성) 설치 다루가치 파견 몽골인 지상주의 역참(통치 → 동서교역) 시박사(무역선 관리) → 항저우, 취안저우 마르코 폴로 입국(1274) 중통원보 등 교초 발행 파스파 문자, 티베트 불교(외래 종교 개방적) * 동서 교류(인쇄술, 나침반 등 전파, 서아시아 수학 등 소개) 교초 남발, 왕실 사치, 과중한 세금 → 쇠퇴, 순제 북방 도피	명(한족) ~ 1368 ~ 1644 홍무제(주원장, 재위 1368 ~ 1398) ① 6부 → 황제 직속 ② 과거제 정비, 성리학 관학화 ③ 이갑제(지방) : 조세, 치안 ↳ 10호 = 1갑, 110호 = 1리 영락제(재위 1402 ~ 1424) ① 몽골 고원 원정 ② 베트남 일시 점령 ③ 조공 책봉(조선, 일본, 류큐) ④ 정화의 항해(1405 ~ 1433) ⑤ 베이징(자금성) 천도
--------------------------------------	---	---	---	---	--------------------------------------	---	--

• 한반도

고려 거란 ↔ 서희(강동 6주, 994), 강감찬(귀주대첩, 1019), 천리장성(1033 ~ 1044) 여진 정벌(윤관, 별무반, 1104) → 동북9성(1107) → 금의 군신관계 수용(이자겸, 1125) 남송과 우호 몽골에 항전(강화 천도, 1232) → 항복(1270) → 부마국(1274 ~), 민족의식 강화[「삼국유사」(1281)], 공민왕(1351 ~ 1374)의 반원 정책(영토 수복, 몽골 풍습 금지, 관제 복구 등)	조선 급진파 신진사대부(정도전) + 신흥 무인 세력(이성계) → 건국(1392) 외교 : 명(조공책봉, 1401), 여진(화전양면), 일본[쓰시마 정벌(1419), 3포 개항(1426)]
---	--

• 일본

가마쿠라 막부 1185 ~ 1333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여원 연합군 2차례 원정 : 태풍 → 신국의식 강화	무로마치 막부 1336 ~ 1573 아시카가 다카우지[~ 남북조(1336 ~ 1392)] 교토(북조, 고곤) - 요시노(남조, 고다이교) 각각 일왕의 조정, 60여 년간 내란 아시카가 요시미쓰[남북조의 내란 통일(1392) →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1401) → 감합 무역 실시(1404)]	* 류큐(1429 ~ 1879) : 중계무역으로 번성(~ 1567)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연결
---	---	---

개념 Check

- ① ()는 자금성을 축조하여 베이징으로 천도하였고, 대월을 공격하여 북부 베트남을 차지하였으며, 중국 최대의 유서(類書)인 『영락대전』을 편찬하였다.
- ② 명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의 중화 질서 확대를 위해 ()는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항해에 나섰다.
- ③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새로운 일왕을 세우자 고다이고 일왕이 피신하여 세력을 유지하면서 ()년부터 ()년까지 남북조의 내란이 발생하였다.
- ④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1401년 명 황제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 받았고, 1404년부터 명과 () 무역을 전개하였다.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몽골군이 배에서 내려 말을 타고 깃발을 높이 들고 쳐들어왔다. …… 일본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쳐들어가면, 그 가운데를 뒤로 물리고 양쪽 끝에서 포위해 남김없이 도륙하였다.
- (나) 일본의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황제 폐하께 국서를 올립니다. …… 예로부터 전해오는 법규에 따라 상인 고이즈미를 승려 소아와 함께 동행하게 하고 친교를 맺고자 토산물을 헌상합니다.

- ①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였다.
- ②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맺었다.
- ③ 변경(카이펑)이 함락되어 북송이 멸망하였다.
- ④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해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
- 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이대장군의 직함을 받았다.

▶ 밑줄 친 ‘황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월(베트남)을 침공해 점령한 해에 중국 최대의 유서(類書)*가 탄생하였다. 이에 황제는 크게 기뻐하여 직접 서문을 쓰고 책의 이름을 붙였다. 이 책의 편찬은 몇 년 전에 황제가 경(經), 사(史), 자(子), 집(集)에서 천문, 의학, 점복, 기예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야를 망라한 유서를 펴내라고 명령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원본은 황궁이 있는 난징의 문연각에 보관되었다가, 이후 자금성이 완성되자 그곳으로 옮겼다.

*유서 : 여러 책들을 내용이나 항목별로 분류 편찬한 책

- ① 매카트니 사절단을 접견하였다.
- ② 임진왜란 때 조선에 병력을 파견하였다.
- ③ 타이완의 정씨(정성공) 세력을 진압하였다.
- ④ 대도를 점령하여 원을 북방 초원으로 축출하였다.
- ⑤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여 조공 체제를 확대하였다.

▶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이(가) 내년 새로운 궁전에서 신하들의 조하(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 황제에게 축하의 예를 포함)를 받기에 앞서 천하에 조서를 내리기를 “지난 날 선제(先帝)께서는 천명을 받아 화이(華夷)를 아우르는 군주가 되시어 강남에 도움을 두고 나라의 기초를 다지셨다. 외람되게 짐이 대통을 이어받아 대업을 진작시키며, 오직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마음에 품어 왔다. 베이징은 실로 도움지로 삼을 만하고, 상서로운 곳이라 여겨져 궁궐을 창건하였다.” 라고 하였다.

- ① 송첸캄포에게 문성 공주를 출가시켰다.
- ②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 ③ 오삼계 등이 일으킨 삼변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④ 동남아시아 등지로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 ⑤ 장거정을 등용하여 몽골과 강화를 추진하였다.

▶정의

의미	•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일률적 통치 기준, 국가 통치 조직·관리 복무 사항·백성의 조세와 노역 등을 규정	
구분	율(律)	• 범죄 행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벌 위주 법률(형법)
	령(令)	• 국가의 조직과 운용, 신분과 수취 제도 등을 폭넓게 규정한 행정 위주의 법률(행정법)

▶역할 : 넓은 지역에 걸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된 통치 기준

▶성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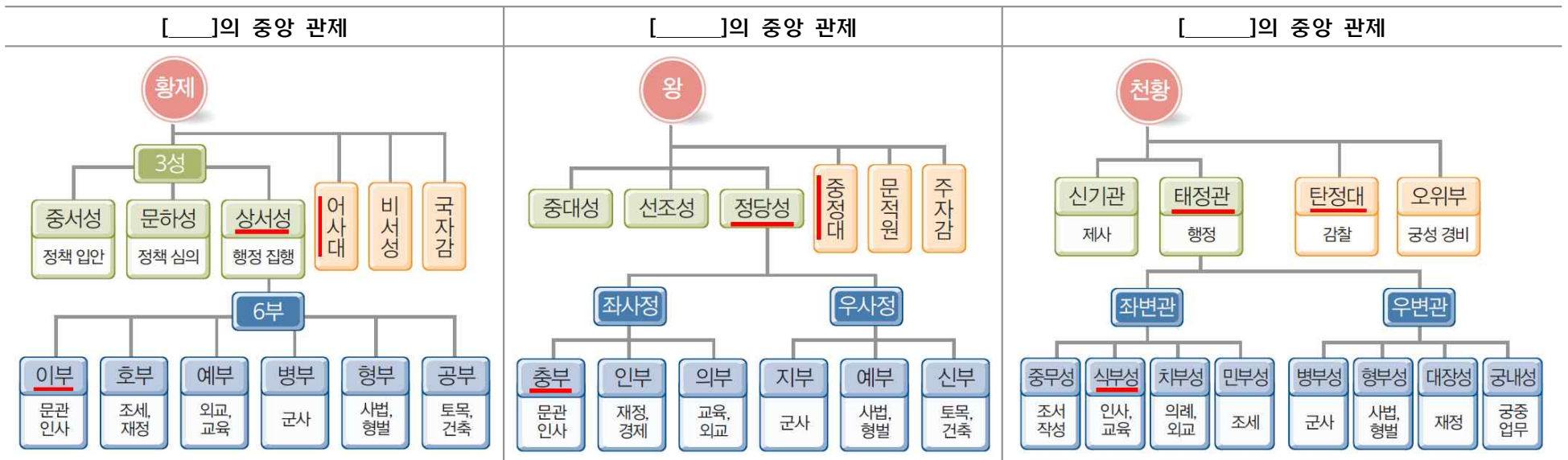
춘추 전국 시대	• 율이 성문화(형법 중심의 법전), <u>진(秦)의 상앙(? ~ 기원전 338)</u> 등 <u>법가 사상</u> 활약	
진(秦)	• <u>이사(? ~ 기원전 208)</u> 중용 → 법치에 입각한 엄격한 상벌 통치	
한(漢)	• 무제(7, 재위 기원전 141 ~ 기원전 87), <u>동중서의 건의</u> → <u>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u> (기원전 136), 태학 설립, 오경박사 설치	
	• 국가를 정교한 법으로 통제하려는 생각과 가족 및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유교적 사고가 함께 율령에 반영 ✓ 가부장적 질서와 신분 질서, 연장자에 대한 우대 등을 위반하는 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이 율령에 포함	
위(魏)	• 관리 등용 방식으로 <u>9품(品) 중정제</u> 실시 → 문벌 귀족 사회의 형성	
진(晉)	• 율령에서 처음으로 <u>율(형법)과 령(행정법)을 분리</u>	
남북조(南北朝) 시대	• 북위(386 ~ 534) - <u>균전제(485)</u> , 삼장제(三長制, 인장·이장·당장, 486), <u>조·용·조</u> 를 실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율령 제정	
수(隋) · 당(唐)	특징	• 율령에 격(格, 율령 추가·보완)과 식(式, 구체적 시행 세칙) 추가
	중앙	• <u>3성</u> (중서성·문하성·상서성, 황제의 통치 보좌) <u>6부</u> (상서성 산하, 행정 업무 담당)
	지방	• <u>주·현</u> 설치, 토지 분배와 과세·징병 등을 위해 <u>호적 작성</u> (3년 주기)
	관리 선발	•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 <u>과거제 시행</u> (587) ✓ 귀족 세력의 견제와 황제권의 강화
	교육 기관	• <u>국가감</u> (중앙, 오경 등 유교 경전 교육), 문묘(공자 배향)
	경제	• <u>균전제</u> (영업전 + 구분전), <u>조(租)·용(庸)·조(調)</u> 의 수취 체제
	군사	• <u>부병제</u> (府兵制) → 농민의 병역 의무, 국가 상비군 제도

▶인빈도

삼국 시대	고구려	• 대학 설립(372), 율령 반포(373)
	백제	• 율령 반포(260), 관인수재죄(262), 오경박사, 의박사·역박사
	신라	• 율령 반포(520), 골품제
남북국 시대	통일 신라	• 집사부 이하 13관부, 9주 5소경, 국학(682), <u>독서삼품과</u> (788), 관료전(687), 정전(722), <u>민정문서</u> (815년 경)
	<u>발해</u>	• <u>3성</u> (정당성·선조성·중대성) <u>6부</u> (충·인·의부 : 지·예·신부), 5경 15부 62주, <u>주자감</u> , <u>문적원</u> (도서와 문서 관장)

▶일본

다이카 개신	645	• <u>나카노오에 황자</u> , 소가 씨 제거, 중앙 집권 체제 강화, 당(唐)의 율령 체제 수용[<u>반전수수제</u> (구분전 지급, 652)]	
다이호 율령 (문무 천황)	701	중앙	• <u>2관</u> (태정관·신기관) <u>8성</u> (좌변관·우변관), 대학료(大學寮)
		지방	• 7도 - <u>국</u> (國, 중앙에서 관인 파견) - <u>군</u> (郡, 현지의 지방 호족을 종신직으로 임명) - <u>리</u> (里)
		감찰	• <u>탄정대</u> (彈正臺)
요로 율령	757	• 제정(712) → 『영의 해(令義解)』(833)	



▶ 과거제의 발전

중국	수	• <u>과거제 시작</u> (유교 경전 시험을 통해 관리 후보 선발, 587)
	당	• 과거제의 제도화, 이부(吏部) 주관
	송	• 황제가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u>전시(殿試) 제도</u> 정제화 • 사대부의 성장
한반도	고려	• 광종(㉔, 재위 949 ~ 975) 때 쌍기(후주 출신인 귀화인)의 건의로 실시(958)
	조선	• 문과, 무과, 잡과 실시 → 문반·무반의 <u>양반 관료</u> 체제의 형성

▶ 과거제의 영향

: 새로운 학자 관료층 성장, 학문적 능력 중시, 유학 발전,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군주권의 강화

- 고구려 태학
- 신라 국학
- 발해 주자감
- 일본 대학료

지문 확인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① 당 대의 율령(『금성·비상 교과서』, p.57·65)

〈교육기관〉

- 당률은 이전 왕조에 비해 형벌을 간략화(5종 형벌)하였다. 태형과 장형의 매의 수를 줄이고, 참형을 삭감하여 유형 92조를 만들었으며, 유형을 삭감하여 도형 71조를 만들었다.
 - 남편이 죽고 상복을 벗더라도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데, 여자의 조부모나 부모가 아니면서 억지로 혼인시킨 자는 도형(강제 노동형) 1년에 처한다.
 - 무릇 주인이 부곡을 구타하여 죽였다면 도형 1년에 처한다. 고의로 죽였다면 1등을 더한다. 그러나 (부곡이) 잘못을 범하여 처벌하다가 죽었거나 과실로 죽였다면 각각 논죄하지 않는다.
 - 무릇 조부모나 부모에게 욕하였다면 교수형에 처한다. 구타하였다면 참수형에 처한다. …… 자손이 가르침이나 명령을 위반하여 조부모나 부모가 구타하여 죽였다면 도형 1년 반에 처한다.
- 『당률소의』

② 송 대의 과거(『비상 교과서』, p.70)

한림학사 이방은 사사로운 정을 개입시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였다고 제소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최종 시험장에서 불합격된 사람 360명의 이름을 명부에 기재한 뒤, 그들을 소견하고 195명을 선발하였다. …… 그리하여 전시(殿試)가 통상의 제도로 되었다. - 송사, 『선거지』

율령 - 통치 규범(법 : 형법 + 행정법) + 유교

• 중국

(하·상·주)~**춘추전국시대** ~~~~~ **진** ~~~~~(진승·오광의 붕기)~~~~~ **한**(전한 → **신** → 후한) ~~~(위촉오) → **서진** ~~~~ **수** ~~~~~~ **당**(618 ~ 907 : 절도사, 황소의 난)

- 부국강병
- 제자백가 (유가·도가·묵가·법가)
- 상앙 BC. 209 ~ BC. 208
- 한비자
- 진시황제 ~ 이사 : 통일
- 동중서, 유교 통치 이념 건의
- 태학, 오경박사, 공자 사당
- 법가 + 유가 ⇒ 천자
- 향거리선제(효, 청렴) 확대 실시
- 남북조 통일
- 3성6부
- 주현제
- 과거제
- 호적제
- 대운하
- 율령·격·식 체제 완성
- 당률(태·장·도·유·사) → 신분·유교 윤리
- 3성 6부 : 중서성·문하성·상서성(6부)
- 주현제
- 과거제, 9품의 관리 등급
- 균전제 : 호적(3년), 평민 성인 남자
- 조세 : 조(토지)·용(부역)·조(호별 남자)
- 부병제
- 수도 장안성(국제적)
- 외래 종교 : 경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 한반도

삼국 ~~~~~~ **통일 신라** + **발해** ~~~~~~ **고려**

- 고구려 : 소수림왕, 율령(373), 태학(372)
- 백제 : 고이왕, 율령(260), 오경박사
- 신라 : 법흥왕, 율령(520)
- 중앙 : 14부(행정), 사정부(감찰), 17관등, 골품제
- 9주 5소경, 민정문서
- 국학(← 당 국자감 영향, 682)
- 독서삼품과(788)
- 한자, 이두 사용
- 중앙 : 3성 6부(당 영향, 독자적 운영, 유교적 명칭)
- 지방 : 5경 15부 62주
- 주자감(← 당 국자감의 영향, 문적원(서적 관리))
- 독자적 연호(인안, 대흥, 건흥)
- 고구려 문화 계승(온돌, 모줄임 천장 구조)
- 2성 6부, 9품 16계 국자감, 어사대
- 과거제(광종, 958)
- 왕실 내 근친혼

• 일본

아스카 시대 → **다이카 개신**(645) → **다이호 율령**(701) → **나라 시대**(710 ~ 794)

- 592 ~ 710
- 호류사 창건(607)
- 국왕 중심 → 중앙 집권 체제
- 나카노오에 황자, 당 유학생 → 소가씨 제거
- 당(唐) 율령 체제 모방 → 정치 개혁
- 반전수수제(652) → 구분전 지급
- 중앙 : 2관 8성제[당 3성 6부 영향, 신기관(제사), 태정관(행정), 중무성·식부성 등 8개 부서]
- 지방 행정 단위 : 국(國, 고쿠) - 군(郡, 리), 군의 관리(호족 임명 → 중앙 파견 No!)
- 하급 관료 선발 시험 존재 → 과거제 시행 No!
- 근친혼 인정, 모계 중시, 친족제 영향

덴무 덴노(40, 재위 672 ~ 686) 10년(681)에 덴노와 황후가 같이 **대극전(大極殿, = 태극전)**에서 친왕과 여러 왕 및 신하에게 조서를 내려 “짐은 이제부터 다시 율령을 정하여 법식을 정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같이 이 일을 수행하라.” 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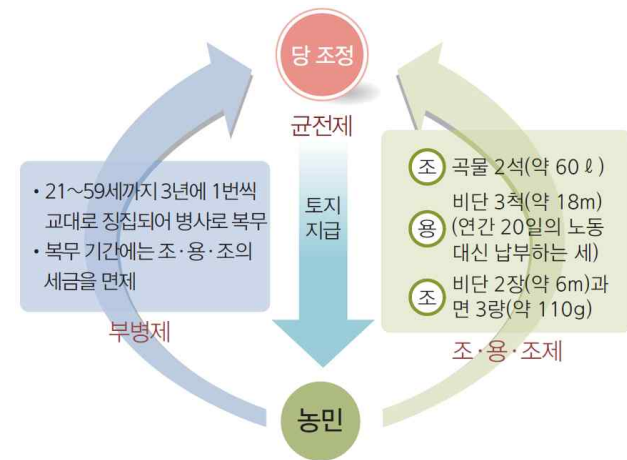
- 『일본서기』

개념 Check

- ① 진의 시황제는 이사 등 () 사상가를 중용하였다.
- ② 진(秦)은 가혹한 법가적 통치에 반발한 ()·()의 난 등의 영향으로 멸망하였다.
- ③ 한 대의 유학자 ()는 인간 사회의 차별적 질서가 하늘(天)에 의해 결정되며, 천자의 지위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④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인 한의 ()는 태학을 설치하고 오경박사를 두었다.
- ⑤ 한 대에는 () 사상이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으로 부상하였다.
- ⑥ ()은 한 대에 법가적 원리인 법치와 강제성, 유가적 원리인 도덕과 자발성이 결합하여 성립되었다.
- ⑦ 남북조를 통일한 () 왕조는 3성 6부제, 과거제 등을 실시하였다.
- ⑧ 수는 () 건설과 고구려 침공에 따른 백성의 불만이 폭발하여 멸망하였다.
- ⑨ 율령 체제는 형법인 (), 행정법인 (), 추가·보완한 법령인 (), 시행 세칙인 ()으로 나누어진다.
- ⑩ 당의 수도 ()에서는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⑪ 당 대에 완성된 율령 체제 아래에서 형벌은 (),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 ⑫ 당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를 실시하였다.
- ⑬ 당은 ()의 규정에 따라 중앙에 ()를 두고, 지방에 주·현을 두었다.
- ⑭ 당은 지방에 공자를 모시는 ()를 세우도록 하여 유교 이념을 널리 보급하였다.
- ⑮ 당에서 균전제를 바탕으로 농민에게 부과하던 수취 제도는 ()이다.
- ⑯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 당의 국자감을 본뜬 ()을 세우고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 ⑰ 신라는 유교 경전의 이해 능력을 시험하는 ()를 시행하여 관리 선발에 활용하였다.
- ⑱ 통일 신라는 9주 5소경 제도를 확립하고 조세 징수를 위한 ()를 작성하였다.
- ⑲ 발해는 (), (), 중대성의 3성을 운영하였다.
- ⑳ 발해는 ()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고 각각 3부씩 나누어 관리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 ㉑ 발해는 서적 관리 및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을 설치하고, 중앙 국립 교육기관으로 ()을 설립하였다.
- ㉒ 645년 일본에서는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추구한 ()이 단행되었다.
- ㉓ 일본에서 율령 반포에 따라 설치된 기구인 ()은 제사를 담당하였다.
- ㉔ 일본은 당의 율령제를 수용하여 701년에 () 율령을 반포하였다.
- ㉕ 일본에서 좌변관 산하의 중무성은 조칙의 문안 심사, ()은 인사·교육, ()은 의례·외교, 민부성은 조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漢) 대의 율령〉



〈당의 토지·수취·군사 제도〉

▶ 밑줄 친 '극기'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흥인 7년 식부성에서 새해 축하 의례에 무단으로 결석하는 관리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석인 태정대신과 좌대신을 대라하는 우대신에게 올렸다. 5위 이상 상급 관리의 경우에는 이미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6위 이하의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이번에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관리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아 국가 통치의 엄한 규율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 ①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을 두었다.
- ②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 ③ 외교를 관장하는 예부를 설치하였다.
- ④ 유목민을 통치하는 북면관제를 운영하였다.
- ⑤ 군사 행정 단위로 천호·백호를 편성하였다.

▶ (가) 극기의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② 정책을 수립하는 중서성을 두었다.
- ③ 남면관제와 북면관제를 운영하였다.
- ④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을 설치하였다.
- ⑤ 중앙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 불교의 성립

기원전 6세기	• 인도에서 창시, 해탈을 목표로 명상과 교리 연구에 전념			
기원전 5세기	부파 불교	• 석가모니 사후 교리상의 문제로 여러 부파로 분열		
		• 상좌부 불교(출가자 중심, 소승 불교)가 가장 발달		
기원전 1세기	대승 불교	성격	• 재가자(일반 신도) 중심, 이타행(利他行) 강조 • 부처(석가모니) 신격화, <u>부처의 자비에 의한 중생구제 강조</u> , 보살(菩提薩埵) 개념 사용	
		구분	교종	• 교리 연구, 부분적 지식의 축적 강조
			선종	• 달마(? ~ 528) 창시, 참선 중시
기원후 6세기	밀교	• 대승 불교의 한 갈래로 등장, 힌두교의 주술적 요소 수용, 인간의 세속적 요구 존중, 만다라와 다라니 • 티베트, 신라, 일본 등에 전파		

▶ 불교의 전파

중국	후한	• 중앙아시아를 통해 대승 불교 수용(67)	
	5호 16국	• 유목 민족 국가들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u>화북 지역에 확산</u> •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승려들에 의해 불경이 한문으로 번역	
	남북조 시대	• 황제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 <u>많은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u> ✓ <u>원강 석굴 사원 축조 시작(평성, 460 ~)</u> , 룡면 석굴 사원(493 ~)	
한반도	삼국	고구려	• 전진, 순도, 372년(소수림왕 2)
		백제	• 동진, 마라난타, 384년(침류왕 1)
		신라	• 고구려, 묵호자, 457년(눌지 마립간 41) ⇨ 521년 ⇨ <u>이차돈의 순교와 공인</u> [527년(법흥왕 14)]
일본 열도	• 백제, <u>노리사치계</u> , 552년(성왕 30) • <u>토착 신앙(신토)과 갈등</u> → 일부 호족들의 보호 속에 보급		



▶ 중국

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현(337 ~ 422), 서역·인도 등지를 여행(399년 출발 → 404년 인도 도착)하고 『<u>불국기(佛國記)</u>』 저술(416) • 달마(? ~ 528), 참선 중시의 선종 창시
당(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현장</u>(602 ~ 664)의 인도 기행(629 ~),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u>대안탑(大雁塔)</u> 조성(645), 『<u>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u>』 저술(646) • <u>감진</u>(688 ~ 763), <u>8세기 후반 일본행</u>, 도다이지(東大寺)에서 <u>계율 전수</u> • 각 나라에서 불교 유학 → <u>의상</u>(625 ~ 702), 다이타당(= 대승당), <u>혜초</u>(704 ~ 787), <u>언닌</u>(794 ~ 864) 등
송(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토종 유행, 선종(禪宗) 발달 → 성리학 성립에 영향
원(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마교의 국교화

▶ 한반도

통일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효(<u>아미타 신앙</u>, 617 ~ 686), 의상(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 625 ~ 702) 등의 활약으로 <u>불교의 대중화</u> • 하대 → 호족의 지원으로 선종(禪宗)의 유행
-------	---

▶ 일본

아스카 시대 (592 ~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수용을 둘러싼 내전(신토 ⇄ 불교) ✓ 불교파의 승리 → <u>신불습합(神佛習合)</u> 표방 • <u>쇼토쿠 태자</u>(574 ~ 622) ✓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u>호류 지</u>(法隆寺, 법륭사, 601 ~ 607) 등 왕실과 유력 가문의 후원을 받은 사찰 건립 → <u>아스카 문화</u> • 전방후원분(4 ~ 6세기) 쇠퇴
나라 시대 (710 ~ 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고쿠분 지</u>(國分寺, 천황의 사찰)의 전국 설립 • 쇼무 천황(聖武天皇, 재위 724 ~ 749), <u>도다이지(東大寺) 노사나불(盧舍那佛)</u> 건립의 조(詔, 743 → 752), <u>도다이지 창건(745)</u> • <u>당(唐) 승려 감진(688 ~ 763)의 활약</u>
헤이안 시대 (794 ~ 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언닌</u>(794 ~ 864), 견당사의 일원으로 입당(入唐), <u>법화원(法華院)</u> 기숙(장보고의 도움) → 『<u>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u>』 저술 • 주술과 기도를 중시하는 밀교(密敎) 확산, 무사들에 의해 선종(禪宗) 확산
가마쿠라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불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 믿는 대중적인 불교 등장과 무사 사회에서 선종의 유행

▶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국가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실은 군주가 곧 부처라는 논리로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를 안정시킴 화려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건립하여 군주의 권위와 신앙심 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북조의 대형 석굴 사원, 일본 나라 시대의 고쿠분 지(國分寺), 신라의 백고좌 강회(『인왕경』 강론), 고려 시대 대장경 간행 		
구원 신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음보살, 약사여래, 아미타불 → 경배의 대상 		
신분 제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설(業說), 신분의 차이에 따른 차별과 고통을 합리화 		
불교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탑[전탑(中), 석탑(韓), 목탑(日)], 불상, 목판인쇄술[『무구정광대다라니경』(신라), 『백만탑다라니경』(나라 시대, 770), 『팔만대장경』(고려)] 		
토착화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와 결합, 『부모은중경』[당(唐)], 유교적 장례 의식과 결합, 무덤 간소화 	
	한반도	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상을 도운 용 → 용신 신앙(龍神信仰)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천이나 용을 섬기는 토속 신앙과 불교를 결합한 팔관회가 국가 행사로 개최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찰 내에 산신각(山神閣), 칠성각(七星閣) 건립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토(神道, 전통적 신앙)와 결합, 신토의 토착 신이 불교 수호(하치만 신상) 		
구빈 활동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진장(無盡藏, 사원에 설치된 금융기관, 남북조 시대 이후)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생고(長生庫), 제위보(濟危寶)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묘 왕비의 비전원(悲田院, 고아·병자 수용)·시약원(施藥院, 병자 치료) 설치(730) 	

-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불경을 거듭 펴라. 그 공덕으로 부모가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 당(唐), 『_____』
- _____이(가) 일찍이 여러 촌을 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였다. 이에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까지도 부처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외게 되었으니 그의 법화가 컸던 것이다.
 ⇨ 불교의 _____



〈원강 석굴 대불〉



〈석굴암 본존불〉



〈하치만 신상〉

강승회	? ~ 280	소그디아나	• 불경 번역(베트남, 남중국 오(吳)에서 활동(손권의 불교 귀의))
[____]	337 ~ 422	남조 동진	• 인도 순례, 『불국기(佛國記)』 저술(416)
[____]	? ~ 528	남조 양	• 인도 승려, 중국 도착(520), 선종 창시(6세기)
혜자	? ~ 622	고구려	• 595년 도일 → 쇼토쿠 태자(574 ~ 622)의 스승, cf) 백제의 혜총
담징	579 ~ 631		• 불교 교리와 붓·먹·제지술 등의 일본 전파, 호류 지(法隆寺) 금당 벽화
[____]	602 ~ 664	당	• 인도 순례(육로, 629 ~), 대안탑 조성(645), 『대당서역기』 저술(646), 『서유기』의 주인공
의정	635 ~ 713		• 현장의 제자, 다이탕당(大乘燈)과 함께 인도 순례(해로, 671 ~), 『남해기귀내법전』 저술
[____]	688 ~ 763		• 753년 일본행[양저우 ⇨ 다자이후 ⇨ 나라(754), 실명(失明)]
			• 고쿠분 지의 총본사인 도다이 지(東大寺)에서 계율 전수, 불경·약품 등 전래
다이탕당	7 ~ 8C	베트남	• 당(唐) 유학, 현장의 제자
[____]	617 ~ 686	신라	• 불교 대중화(아미타 신앙), 『관비량론』 등 현장 교리 정리 → 당(唐), 일(日) 불교계에 영향
[____]	625 ~ 702		• 당(唐) 유학, 부석사 건립, 화엄종 개창(『화엄일승법계도』), 불교 대중화(아미타 신앙 + 관음 신앙)
[____]	704 ~ 787		• 인도 도착(바닷길, 723), 『왕오천축국전』 저술(727), 인도 승려 금강지로부터 밀교(密敎) 학습
도의선사	8 ~ 9세기		• 당(唐) 유학, 남선(南禪) 수용(821), 9산 선문 융성
[____]	794 ~ 864	일본	• 당(唐) 유학, 장보고의 산동 반도 적산 법화원(法華院) 기숙, 『입당구법순례행기』 저술(838 ~ 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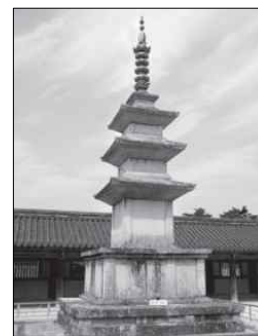
대안탑(645)



미륵사지 석탑(7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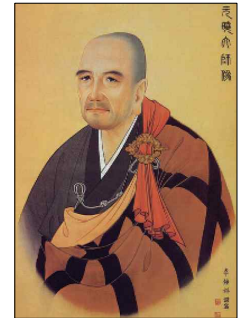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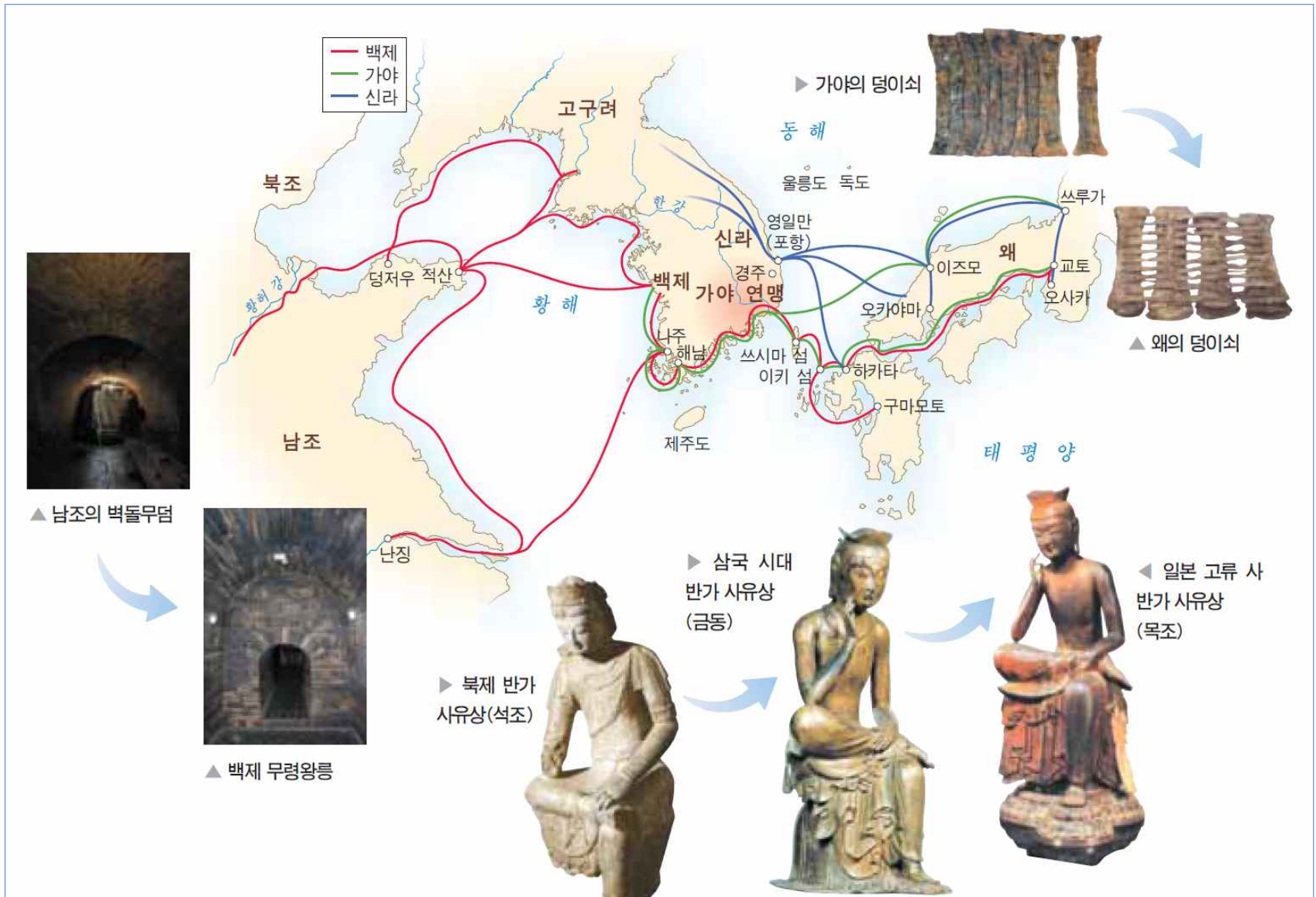
호류 지 5층 목탑(7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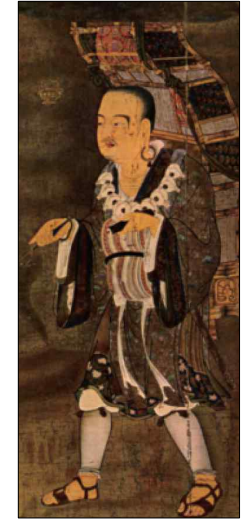
석가탑(751)



도다이 지 금당(= 대불전, 752)



<원호(617 ~ 686)>



<현장(602 ~ 664)>

① 불교의 전파와 수용(『금성 교과서』, p.61)

- **법흥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 (신하들이) 불평을 많이 하였으므로 왕이 근심하였다. (왕의) 가까운 신하인 **이차돈**이 아뢰기를, “제 목을 베어 여러 사람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라고 하였다. …… 목을 베자 …… 피가 솟구쳤는데 그 색이 우윳빛처럼 희었다. 여러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교를 헐뜯지 않았다. - 『삼국사기』, 신라 본기
- 백제 **성왕 때**, 태자상(석가모니상) …… 등을 보내고 …… 천황이 받고는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 써야 하겠는가, 쓰지 않아야 하겠는가? ……” 라고 말했다. 신하들은 “우리 국신(國神)의 마음을 거스르까 두렵습니다. …… 다른 나라 신(부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였는데 다만 소아대신 도목숙네(蘇我大臣稻目宿禰, 소가 씨) 홀로 “다른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 이에 그곳(모구원 후궁)에 두고 모시기 시작하였다. - 『원흥사연기』

② 신라 백고좌 강회(『천재·비상 교과서』, p.71·72)

3월에 (선덕)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로 효과가 없었으므로 **황룡사**에서 백고좌(百高座) 강회를 열어, 승려를 모아 『인왕경(仁王經)』을 강론하게 하고, 1백 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 『삼국사기』, 신라 본기

③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비상 교과서』, p.72)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천재·금성 교과서』, p.74·67)

- 귀하를 직접 뵈 적은 없으나 높은 이름을 오래전에 들었기에 흠모하는 마음 더욱 깊어만 갑니다. ……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세우신 이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에 말로 다할 수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 적산으로 돌아와서 청해진에서 (방향을) 바꾸어 본국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장대사(장보고)를 뵈고 자세히 사정을 아뢰어 주십시오. …… 만일 그곳(청해진)으로 사람과 배가 왕래한다면 청하옵건대 명령을 내려 특별히 찾아봐 주십시오. 승들의 귀향은 오로지 (압야의) 크나큰 도움에 달려 있습니다.

Summary

불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

불교

- BC. 6세기 창시
 - 석가모니 = 부처(붓다)
 - 붓다 = 진리 깨달은 이
- 인과응보·윤회전생·해탈·자비·평등
- 승가공동체
- 부파 불교
 - ① 상좌부 : 계율(보수적)
 - ② 대중부
- 대승 불교(BC. 1세기)
 - ① 재가자(일반 신도) 중심
 - ② 석가모니 신격화
 - ③ 자비 → 중생 구제
 - ④ 보살 개념(ex. 관세음보살)
 - ⑤ 반야경, 화엄경
 - ⑥ 정토 신앙(민중적) : 극락 ←
 - ⑦ 동북아시아 전파
 - ⑧ 7세기 밀교 : 주술, 만다라
티베트, 日 전파
- 스투파 : 탑
 - ↳ 부처 무덤(석가모니 사리)

중원

- AD. 67, 중국 전래(비단길)
- 위·진·남북조 시대 → 확산
 - : 삼국(위·촉·오) - 불경 번역, 토착신앙과 융합
 - : 5호 16국 - 적극 수용
 - 민족적 편견 無
 - ↳ 후조(갈족 - 석류) : 이민족 출신
 - * 전진 : 둔황 석굴사원(366 ~)
 - 북조 : 북위(선비족) : 원강 · 룡면 석굴사원
 - ↳ 균주 = 부처, 460
 - 동진 : 법현, 「불국기」(인도 순례, 416)
 - 양 : 무제(황제 보살), 백제와 교류
- 남북조
 - 선종 : 달마, 직관과 참선 강조
 - 무진장 : 기부금, 서민 대출
- 당(唐)
 - ① 「부모은중경」 : 효 강조, 유교 융합
 - ② 현장, 「대당서역기」(인도 순례, 646)
 - ③ 대안탑 : 현장, 불경 보관, 벽돌탑(전탑), 645
 - ④ 감진(688 ~ 763) : 日 → 계율, 불상, 불경, 약품
 - ⑤ 정토정, 법상종, 화엄종, 진언종 등

한반도

- 고구려 : 소수림왕 수용, 전진, 순도, 372
 - 혜자(소토쿠태자 스승, 595 ~)
 - 담징(일본, 교리 전수, 610)
- 백제
 - ① 침류왕 수용, 동진, 마라난타, 384
 - ② 남조에서 경전 수입 → 일본 전파
 - ③ 익산 미륵사지 석탑
- 신라
 - ① 눌지마립간 수용, 고구려, 457
 - ② 법흥왕, 이차돈의 순교와 공인, 527
 - ③ 거칠부 → 고구려 승려 혜량의 제자
- 통일 신라
 - ① 원효 : 정토신앙 보급(나무아미타불)
 - : 『판비량론』 → 당(唐), 일(日)에 영향
 - ② 의상(625 ~ 702) : 당(唐) 유학, 화엄종 개창
 - ③ 혜초(704 ~ 787) : 당(唐) 유학, 밀교 학습
 - : 「왕오천축국전」(727)
 - ④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751)
 - ⑤ 도의 : 선종 도입(821) → 호족의 지원, 확산
- 토착화 : 용신 신앙(신라), 팔관회(고려)
 - : 산신각·칠성각(조선)
-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 심화 : 이두

일본

- 백제의 불교 전파(노리사치계, 552)
 - : 초기 수용을 둘러싼 대립
 - : 내전과 신불융합(하치만 신상)
- 아스카 문화
 - 백제 영향, 왕실·유력 가문 후원
 - 호류 지 5층 목탑, 백제 관음상
- 나라 시대(710 ~ 794)
 - ① 고쿠분 지(구니 사찰, 쇼무 덴노)
 - ② 도다이 지 대불(743 → 752)
 - ③ 도다이 지 낙성식(745)
 - : 唐(도선), 印(보리선나), 참파(불철)
- 헤이안 시대(794 ~ 1185)
 - : 밀교 발달
 - : 엔닌, 당 유학(청해진 → 적산 법화원)
- 가마쿠라 막부 시대(1185 ~ 1333)
 - : 선종·정토 신앙 발달 → 대중적
-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 심화
 - : 가나(한자를 변형하여 일본어 표기)

▣ 불교의 확산과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 심화

불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승려들은 한문으로 된 불경을 읽고 한자를 써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이후 신라에서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吏讀)가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도 한자를 변형하여 일본어를 표기하는 가나가 만들어졌다.

▶ 밑줄 친 '그' 가 활동한 시기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강승회가 베트남에서 많은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 ② 원강 석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 ③ 혜자와 혜총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④ 신라에서 선종이 널리 성행하였다.
- ⑤ 쇼무 덴노의 명으로 도다이지(東大寺)가 건립되었다.

▶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백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재[인(仁) 강조], 맹자[의(義) 강조, 성선설], 순자[예(禮) 강조, 성악설]
훈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없어진 경서의 복원·해석을 중시하는 해석적 유학, 5경(『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 중시 • 한(漢) 대 : 동중서의 제안으로 무제 때 관학의 지위(통치 이념 역할) • 당(唐) 대 : 공영달의 『오경정의』 완성(고종, 653) → 훈고학 집대성
성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족의 민족의식이 강화되는 남송(1127 ~ 1279) 대 주희(1130 ~ 1200)의 완성 •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 수용(이론적 탐구와 수양 강조 경향), 우주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신유학, 철학적 유학 • 『근사록(近思錄)』(주희, 1175) → 성즉리(性卽理), 이기론(理氣論) 중시, 거경궁리(居敬窮理)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수양 방법으로 제시 • 5경보다 4서(『논어』·『맹자』·『대학』·『중용』) 중시 → 『사서집주(四書集注)』(주희, 1177) • 군신 간의 의리와 대의명분 중시, 화이론 강화, 신분제·지주제 정당화,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소학(小學, 유자징, 1187)』 보급 • 중국·조선 → 정치 윤리이자 사회 윤리, 서원의 건립(백록동 서원)과 향약(鄉約) 실시
양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송(南宋)의 육구연이 심학(心學) 강조 • 명(明) 대 왕수인(= 호 ‘양명’, 1472 ~ 1528)의 완성, 실천적 유학, 『전습록(傳習錄)』(1511) ↳ 심즉리(心卽理, 마음이 곧 이), 양지(良知), 치양지(致良知), 지행합일(知行合一) 강조,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 • 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에게도 큰 환영 → 지나친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폐단
실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明) 후기, 실사구시의 실용적 유학 • 『본초강목』(이시진, 의학, 1596), 『천공개물』(송응성, 산업 기술, 1637), 『농정전서』(서광계, 농학, 1639)
고증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말 청초 고염무(1613 ~ 1673), 황중희(1610 ~ 1695) 등이 선구적 역할 •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인 사실 규명 중시 • 청(淸)의 사상 탄압(문자의 옥)과 한인 지식층 회유를 위한 대규모 편찬 사업 과정에서 발달 ↳ 『고금도서집성』(옹정제, 1725), 『대의각미록』(옹정제, 1729), 『사고전서』(건륭제, 1773 ~ 1782)
공양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법적 유학, 캉유웨이(1858 ~ 1927)·량치차오(1873 ~ 1929) • 진보 사관, 변법자강 운동(= 무술변법, 1898)의 이론적 토대
신문화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5년 천두슈(1879 ~ 1942), 후스(1891 ~ 1962) 등이 『청년잡지(靑年雜誌)』 발간 ↳ 유교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과학을 배울 것을 주창, 『신청년(新靑年)』 발행(1916) → 1919년 5·4 운동의 사상적 바탕

중국	남송	서원(書院)	• 성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사설 교육 기관 → 사대부 결집에 영향
		향약(鄉約)	• 상부상조의 정신과 유교 윤리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 → 성리학적 규범이 서민에게도 확산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에 유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보급 • 『성리대전(性理大全)』(1415) 등 성리학을 집대성한 문헌 편찬 → 과거 시험의 참고서로 널리 사용 • 지배 계층인 신사 → 지역 여론 주도, 향촌 사회에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에 이바지 	

한반도	고려	수용	• 안향(1243 ~ 1306), 원에서 『주자전서(朱子全書)』 도입, 성리학 소개, 1290년(충렬왕 16)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권당(1314 ~ 1320)에서 원(元)의 학자와 교류, 이제현(1287 ~ 1367)과 이색(1328 ~ 1396)의 활동 • 사서(四書)가 과거 시험에 포함,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불교 사원과 권문세족의 횡포 비판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의 이념적 기반, 국가의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국가 의례(『국조오례의』)와 사회 의례(『주자가례』)의 기준 • 사림의 성장 → 향약의 보급(여씨 향약, 1517), 백운동 서원 건립(1543) →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질서 확산 • 성리학의 이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황(1501 ~ 1570) →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 『성학십도』(1568) ✓ 이이(1536 ~ 1584) → 통치 체제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방안 제시, 『성학집요』(1575) · 『격몽요결』(1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학적 논의 → 사단 칠정 논쟁(1559 ~ 1566), 인물성동이논쟁(18세기) • 조선 후기 → 부모 삼년상, 장남 중심의 재산 상속과 제사, 가묘와 사당 건립, 양자 제도 일반화, 친영(시집간다) 제도 확산 	

일본**	전래	• 가마쿠라 막부 후기 →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
	학자	후지와라 세이카 (1561 ~ 1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불교 승려 • 정유재란 때 포로로 잡혀온 강항(1567 ~ 1618)과 교류 → 『사서오경왜훈』 간행(1599)
		하야시 라잔 (1583 ~ 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 • ‘상하 정분(定分)의 이(理)’ 를 바탕으로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사회의 틀 강화(『삼덕초(三德抄)』 저술) • 성리학의 관학화 주도, 에도 막부의 교육과 학문 관장
한계	• 불교, 신도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는 못함	

① 성리학의 특징(『미래엔 교과서』, p.77)

- **성(性)은 곧 이(理)이다.** 천하의 이는 그 시작하는 곳을 살펴보면 선이 아닌 것이 없다. 희로애락이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무엇이든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밖으로 나타나서 절도에 맞는다면 또한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 『근사록(近思錄)』
-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이(理)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늘이 그것을 얻어 하늘이 되고 땅이 그것을 얻어 땅이 되며 **무릇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이 또한 각기 그것을 얻어 성(性)을 갖춘다.** …… **이처럼 만물에는 ‘이’가 흐르고 있으며 ‘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② 주희의 성리학(『천재·금성 교과서』, p.77·64)

- 『대학(大學)』은 공자가 남긴 글로서, **학문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배워야 할 덕행의 지름길이다.** 곧 오늘날 사람이 옛사람들의 글을 배우는 첫 번째 순서가 『대학』이며, 『논어』와 『맹자』가 다음이다. 『대학』으로부터 학문을 시작하면 깨달음을 얻는 데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 『대학장구(大學章句)』
- 성(性)은 본래 선한 것이니, 이(理)를 좇아 행하게 된다. …… 사람은 본래 이(理)를 가지지만 단지 기(氣)를 받아 물욕(物慾)에 가리어진다. 만약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가 앎에 이른다.)** 하지 않게 된다면 …… 거듭 실패하게 된다. …… 배우는 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궁리(居敬窮理, 내면적 집중과 엄숙한 태도에 머물며 이치를 궁리)** 두 가지에 있다.

③ 하야시 라잔의 『삼덕초(三德抄)』(『금성·미래엔 교과서』, p.65·80)

- 인간 세계는 만사가 상하 관계 또는 전후 관계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진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세계를 예(禮)의 마음으로 꼭 채운다면 군신 관계가 어지럽지 않고, 그에 따라 마땅히 인간 사회 또한 평화롭게 안정될 것이다.
- 예란 사람이 처신을 삼가 서열이 흐트러지지 않음을 말한다. 젊은이가 늙은이를 공경하고 천한 자가 위계가 높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예의이다. ……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것이 천지(天地)의 예이다. **인간은 이 천지의 예를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으므로 모든 일에는 상하 전후의 순서가 있다. 이 마음을 천지로 확장하면, 군주와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인간의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

④ 양명학(『천재·미래엔 교과서』, p.81·77)

- **이치란 것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마음이 곧 이(理)이다.** 마음이 사욕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천리(天理)이니, 조금이라도 밖에서 무엇 하나 가져와 보낼 것이 없다. 온전하게 천리를 따르는 이 마음이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효도이고, 임금을 섬기는 일에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 마음에서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토록 노력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 『전습록(傳習錄)』

5 이황과 일본 성리학(『천재·금성 교과서』, p.79·68)

오사카에 서적이 많음은 실로 천하의 장관인데, 우리나라 여러 명현의 문집 중에서 왜인이 높이고 숭상하는 것은 『퇴계집(退溪集)』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곧 집집이 외우고, 모든 선비가 필담으로 물을 때 반드시 『퇴계집』을 첫째로 삼았다. 도산 서원이 어느 고을에 속하는지 묻는 이가 있었고 …… 또 선생 생전의 기호도 묻는 등, 그 말이 심히 많아 다 기록하지 못한다. - 신유한, 『해유록(海遊錄)』

6 이이의 서원 향약(『천재·금성 교과서』, p.78·65)

1. 선행과 악행의 내용을 정해 두고 권선징악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른바 선행이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가 깊은 것,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친구 간에 화목한 것, 이웃 마을과 화평한 것, 유교 윤리에 맞는 행동으로 몸가짐을 잘하는 것 …… 등이다.
8. 나이가 30세 이하인 사람으로 글을 배우지 아니한 자는 모두 『소학』, 『효경』 등의 글을 읽게 하며, 읽지 않는 자는 벌줄 것을 논한다. - 『율곡전서』

7 성리학과 양명학**

- 물(物)은 형(形)이고 척(則)은 이(理)입니다. 형체는 형이하자(形而下者)이고 이치는 형이상자(形而上者)입니다. 사람이 태어남에 진실로 사물이 없을 수 없으니, 사물의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성명(性命)의 바름을 따를 수 없고 사물의 마땅함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물에 나아가 지(知)를 구하고 이치를 구해야 합니다.
- 그는 『대학』의 격물(格物)을 ‘사물을 바로 잡는다.’ 라고 해석하였으며, 『대학문』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또한 그는 **사람이 누구나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선천적, 본원적인 도덕지(道德知)의 실현을 강조하며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얕은 행위의 시작이고, 행위는 얕의 완성이다.** 성인의 학문은 다만 하나의 공부이니, 얕과 행위를 두 가지 일로 나눌 수 없다. 성인의 학문은 지(知)와 행(行)으로 분리할 수 없는 본래 하나인 구체적인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일이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경(五經)보다 사서(四書) 중시 • 거경공리와 격물치지를 통한 본성 회복 강조 •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수인이 대표적 학자 • 심즉리(心卽理) 강조 • 지행합일의 수행 방법 강조

Check!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중화 사상 송은 요·금에게 매년 막대한 양의 세폐를 바쳐야 했다. 나아가 금이 회복을 차지하면서 송은 양쯔강 이남으로 쫓겨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대부들은 강렬한 화이 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중화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이민족에 대한 자주성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은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하였다.



주희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주자라고도 불린다. 주희는 인간과 사회, 인간과 우주가 '이'라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하여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면서 성리학을 완성하였다. 그는 "사서집주"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원 대 이후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택되었다.



송 대의 사대부 송 대 과거제가 확대되면서 지배층으로 성장한 사대부는 성리학을 수용하여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사대부는 서원과 향약을 보급하여 성리학을 확산시키고 후학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백운동 서원 성리학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조선 시대에 성행하였다. 16세기에 사람들은 서원을 건립하고 향약을 보급하여 자신들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리학적 윤리의 향촌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야시 리잔 임진 전쟁과 정유 전쟁 때에 조선의 유학자가 포로로 잡혀오면서 일본에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사서오경왜훈"을 간행하였고, 그의 제자인 하야시 리잔은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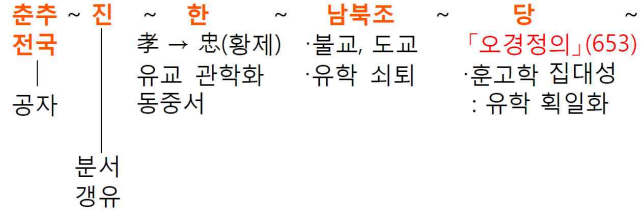


문묘(베트남) 15세기 중엽 레 왕조의 성종이 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을 보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성리학은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Summary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 중국



- ① 강남 지주 → 유학 공부
 ② 과거 → 사대부(문치주의)
 ③ 국방력 약화, 북방 유목 민족 압박, 중화사상대
 ④ 불교·도교의 형이상학 수용
 도교 은둔, 불교 출가 비판
 ⑤ 우주 원리와 본성 탐구 → 신유학
 주돈이(태극) → 장재(기) → 정호·정이 → 주자
 성즉리, 이기론, 거경공리, 격물치지
 주희, 「사서집주」(원·명·청, 조선의 과거 교재), 「근사록」
 명분론(상하관계), 화이관(이민족과 중화 차별)
- 명: 성리학의 관학화, 「성리대전」(1415), 확산: 서원, 향약
 cf) 양명학(명) 왕수인(1472 ~ 1528)
 남송 육구연의 심학 수용
 심즉리(心即理), 치양지, 「전습록」, 지행합일(知行合一)
- 청: 고증학(실증)
 경세치용, 실질 숭상, 객관 강조, 음운·경학, 역사·지리, 문헌 고증

• 한반도

- 고려 ~ 조선
 ① 안향, 「주자전서」 도입(1290)
 ② 이제현, 백이정, 이색, 정몽주
 ③ 신진사대부 → 불교·권문세족 비판
 ④ 만권당(원 학자 교류, 1314)
- 조선
 ① 국가·사회 지배 이념
 ② 「사서집주」(과거 교재)
 ③ 이황, 『성학십도』, 일본 영향 이이, 현실 개혁, 『격몽요결』
 ④ 향약(사림, 향촌, 1517) 백운동 서원(주세붕, 1543)
 ⑤ 논쟁[태극, 주리·주기 논쟁]: 예송(상복), 인물성동이 논쟁
- ⑥ 명·청(사절단, 일본(통신사))
 ⑦ 『주자가례』(관혼상제), 가묘(家廟)
 ⑧ 중기 이후: 동성불혼, 가부장적 가족 질서 강화: 사당(祠堂)
 ⑨ 의학 서적: 『향약집성방』(1433): 『동의보감』(1613)
- <조선 후기>
 ① 윤희, 박세당: 독자적 경전 해석
 ② 중농학파 실학: 유형원, 이익, 정약용(목민심서, 경세유표)
 ③ 중상학파 실학: 청(滿) 문물 수용, 이용후생 강조: 홍대용(중국 중심 세계관 비판): 박지원(「열하일기」, 수레·선박 사용): 박제가(「북학의」, 소비 = 우물 비유)

• 일본

- 가마쿠라 막부(12~14C) ~ 에도 막부(17~19C)
 ·성리학 전래 ~ 정유재란: 강항 ~ 후지와라 세이카 → 「사서오경왜훈」(1599)
- cf. 일본 유학

 - 가묘·종묘無, 에도막부 유시마성당(대성전, 교육, 1690)
 - 성리학 일본 실정에 맞게 해석, 훗날 양이론에 영향
 - 결혼 등 의례는 신도, 장례·제례는 불교식
- 에도 막부(17~19C)
 ① 상하 정분의 이(「삼덕초」)
 ② 막부 제도·의례 정비 야마자키 안사이(1618 ~ 1682)
 ① 「사서집주」, 「근사록」 강조
 ② 신도를 이기론으로(성리학적) 해석
- 주자의 해석에 이의 제기
 · 고학: 이토 진사이(1627 ~ 1705), 고대 유학으로 복귀
 · 국학: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 ~ 1801), 고유 정신 강조
 ↳ 일본 우월 의식, 존왕양이, 국가 신도(일왕 충성)
 · 양명학: 구마자와 반잔(1619 ~ 1691), 막부의 세습 비판

고려·조선의 성리학

- 고려 후기 ()에서 전래 ⇨ 신진사대부의 수용 ⇨ 권문세족 비판, 조선 건국
- 조선의 통치 이념, 국가·사회 의례 논리, 성리학의 이해 수준 심화
- 사림의 성장 ⇨ 서원과 () 보급

일본의 성리학

- () 시대 후기에 전래
- () ~ 강항의 교류 ⇨ 「사서오경왜훈」 간행
- () ⇨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 『] 저술

개념 Check

- ① 당 때에는 『_____』가 편찬되어 훈고학이 집대성되었다.
- ② 남송의 () (1130 ~ 1200)는 우주의 보편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을 집대성하였다.
- ③ 성리학에서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인 수양론으로 거경공리와 ()가 있다.
- ④ 선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과 향촌 자치 규약인 향약은 성리학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⑤ 고려 말에 성리학을 수용한 ()은 불교와 권문세족의 폐단을 비판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⑥ 조선의 ()은 중종 때 처음 시행되었고, 선조 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⑦ 주세붕이 1543년에 세운 () 서원은 1550년 소수 서원으로 사액(賜額)되었다.
- ⑧ 후지와라 세이카는 조선의 강항과 교류하면서 『_____』을 간행하였다.
- ⑨ ()은 성리학의 관학화를 주도하고,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에 기여하였다.
- ⑩ 일본 사회는 신분을 세습하는 ()들이 지배층을 이루고, 유학 경전을 시험하는 과거제도 실시되지 않았다. 또 ()와 신토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였기 때문에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약록 서원의 문묘 대성전〉

▶(기) 유학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3. (두 인물이 숙소에서 대화하는 장면)

△△△: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 이래로 그들의 학통을 전수받아 (가)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오규 소라이가 북고의 학문을 주창하여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 북고의 학문은 주희가 집대성한 (가)을/를 따르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 학문은 주희의 경전 주석에 의거하기보다는 옛 경전을 중시합니다.

○○○: 주희의 주석을 따르지 않고 경전을 읽는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① 일본의 다이호 율령 반포에 영향을 끼쳤다.
- ②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③ 남송 이후 『소학』 등의 보급을 통해 확산되었다.
- ④ 조선에서는 서원을 통해 지방 사회에 보급되었다.
- ⑤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에 이용되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은(는) 어려서 출가한 후 교토 쇼코쿠사에서 수학하였다. 옛글에 능통하였던 그는 33세가 되었을 때 이에야스의 초청을 받고 에도에 가서 『정관정요』를 강의하기도 하였다. 이후 정유재란 때 포로로 끌려 온 강항으로부터 과거제, 춘추의 석전(釋奠) 등을 배웠고, 이러한 교유를 통해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 주석서를 간행하였다.

- ① 『소학』을 편찬하였다.
- ②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③ 주자감에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 ④ 제자 하야시 라잔에게 성리학을 전수하였다.
- ⑤ 스키타 겐파쿠와 함께 『해체신서』를 간행하였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옆 그림은 중국 무이산(武夷山)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그린 조선 시대 산수화이다. 남송 시기에 성리학을 집대성한 [가]은(는) 이곳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저술 및 강학 활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무이구곡은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에게 학문의 본산이자 이상향으로 인식되었다.

- ① 『격몽요결』을 편찬하였다.
- ②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③ 무사 중심의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였다.
- ④ 치양지와 심즉리를 강조하였다.
- ⑤ 학문하는 사람이 맨 처음 배워야 할 덕행의 지름길로 『대학(大學)』을 강조하였다.